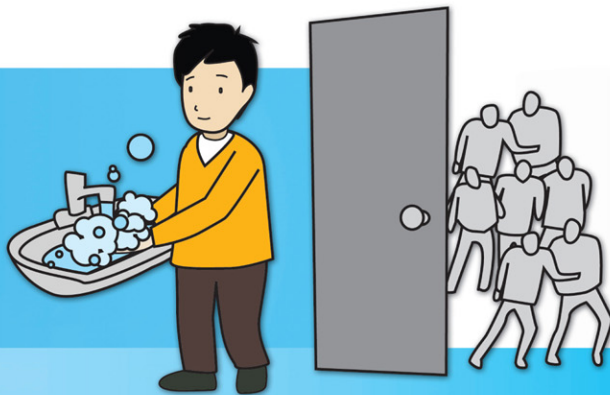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09 08.26
No.26(통권 127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김대중 前 대통령 대중의 가슴 속으로
기획특집 세계가 본 대한민국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 제패한 양용은
우리 아이 신종플루 이렇게 막아요!
유엔환경계획(UNEP)
"대한민국 녹색성장
가장 빠르고 체계적"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한국인”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한국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나라다. 남북 분단의 아픔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성장을 일궈냈고, 12년 전의 외환위기도 거뜬히 극복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작지만 강한 나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같은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랜 한국생활에서 터득한 나의 결론은 바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두뇌가 명석하고 지적 수준이 높다. 게다가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도 대단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빨리 해낸다. 이를테면 하루에 10개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7개밖에 하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15개를 해낸다.

때로는 일에만 매달려 하루를 보내는 한국인의 ‘여유 없음’이 조급함으로 비치기도 한다. 또한 어느새 한국문화에 동화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럴 때면 시간과 일에 얽매이지 않는 외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한국인들이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살아왔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즐기고 놀고 잘 때도 땀 흘려 일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단기간에 아시아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근래에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도 한국을 무릎 꿇리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은 경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한국은 불굴의 투지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기에 지금의 경제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제 한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는 많은 기업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내실을 다져온 덕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도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이미 곳곳에서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그린산업에 뛰어들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특히 한국에는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다. 한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이끈 일등공신도 중소기업들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에도 거침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그린에너지 개발, 그린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그들이 일궈내는 성과는 다시 대기업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한국은 머지않아 녹색뉴딜산업의 선도국가로 중추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08.26_No.26(통권 127호)

기획특집

어메이징 코리아
세계가 본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계는 금융위기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 한파는 한국을 덮쳤다. 그러나 한국은 꿋꿋하게 일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 세계 9위의 수출대국 등 낭보가 이어졌다. 해외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표지 설명 '청소년들의 환경 유엔총회' 인 유엔환경계획(UNEP) 툰자회의가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0개국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UNEP는 참가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06

14

발행일 2009.8.2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자유-평등, 민주화-산업화, 성장-복지, 민족-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

●● 〈Weekly 공감〉 25호(8월 19일자)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몇 개를 소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대통합의 전도서였다. 원고를 보시지도 않고 당당하게 한 치 오차 없이 또박또박 패기 넘치게 한 연설은 세기에 한 번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바로 그것이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대통합의 선언서이며 실천강령이었다. 이번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제일 많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 정치 쪽인 것 같다는 점이다. 자신들은 올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는 국회의원들 말이다. 정말 자질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_ oh680

"이 대통령님~ 이번 광복절 경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평소 생각이자 국민들의 바람의 소리를 읽으신 듯합니다. 특히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자'라는 표현은 갈등을 이해하고 흡수하려는 정부의 다짐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번 축사는 국민들의 생각을 꼭 집어 담은 것 같아 마음의 감동이 많이 일었습니다. 화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는 듯한 연설이어서 보는 국민 많이 흐뭇합니다."_ wnaakfoffk

"여러 가지 내용 중 서민 주거안정 문제를 모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서민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열심히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 정부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 때 TV에 나오셔서 임기 안에 집 없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힘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_ jinhon1

●● 최근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강력한 정부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한 누리꾼(네티즌)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가을은 다가오고 있고 기온이 낮아지면 급속도로 퍼진다는데, 대체 나라에선 뭘 하고 계시나요? 백신 보유율도 낮고…. 지금 급한 게 뭔데요? 국민들이 다들 걱정하고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 정치판 싸움들 그만하시고 국민 걱정 좀 덜어주세요. 백신 확보 얼른 하셔서 무서운 불안감 좀 떨쳐주세요. 접종도 해주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_ jhee23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고 안전하게 가죠.

문화체육관광부, 9월 7일까지 '친서민정책' 온라인 이벤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7일까지 친(親)서민정책 온라인 이벤트인 '걱정 마 엄마!–내가 찾은 서민정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친서민정책 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누리꾼(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체험수기 공모 △민생현장 사진 공모 △서민정책 정보 스크랩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벤트 내용

1. **'들려줘, 엄마!'(정책 체험수기 및 소개)** 서민정책 수혜자가 정책 체험기를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연을 추천하거나 댓글 달기
2. **'보여줘, 엄마!'(민생현장 사진 공모)** 서민과 중산층 삶의 현장을 담은 사진을 자유롭게 올리고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3. **'알려줘, 엄마!'(정책 정보 스크랩)** 이벤트에 소개된 서민정책을 지인(知人)에게 e메일을 통해 전달

– 참여 사이트 http://dontworrymom.korea.kr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Weekly 공감〉 24호(8월 12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광복절 **3** 합리화 **5** 문중 **7** 교과서 **9** 민원실
세로 **1** 통합 **4** 애교 **6** 중도실용 **8** 서민층

당첨자
강현아(서울 종로구 숭인1동)
고정순(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심명은(대전 서구 내동)
오지혜(대구 동구 신암동)
최청아(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가 로

1. 국가가 무역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도 매기지 않으며 각 개인의 자유에 맡겨 하게 하는 무역.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OOOO협정(FTA)을 확대해가고 있다."
3. 공익을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재산 사회 OO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4.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감정과 이념 갈등을 OO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현지 보고나 기사를 이르는 말. 'Reportage'의 준말.
9.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포괄하는 말.

세 로

1.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등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은 OOO을 가질 자격이 있다."
2. 자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OOO 농산물이다."
5.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 한국만이 정당성이 있는 정치제도와 명확한 이념을 가진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 가치동맹의 축'이라고 말했죠. 기 OOO.
6. 한국 최초의 우주 OOO인 나로호는 최근 다시 발사가 연기됐지만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7. 불교에서 스님들이 여름철에 90일 동안 한곳에 모여서 수행에 전념하는 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입원 치료 중이던 서울 연세의료원에서 향년 85세로 서거했다. 연세의료원은 김 전 대통령의 사인이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 13일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김 전 대통령은 폐색전증으로 병이 전이돼 기관지절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왔다.

연세의료원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 임시 빈소에는 서거 8일 전 병실을 찾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찾아 헌화하는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이 투병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군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한때 최대 정적이기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문병을 해 김 전 대통령과 화해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

서거 사흘째인 8월 20일 치러진 김 전 대통령 입관식은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족만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 의식으로 치러졌다. 입관이 끝난 김 전 대통령 시신은 운구 절차에 따라 국회 빈소로 옮겨졌다.

폐렴으로 입원 후 증세 악화… 85세로 생 마쳐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國葬)으로 치러져 8월 23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영결식이 열렸다. 이날 영결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등 3부 요인과 주한 외교관, 조문사절, 유가족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례는 발인식, 영결식으로 이어져 장지인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졌다. 김 전 대통령이 안장된 곳은 국가유공자 제1묘역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각각 1백미터, 3백50미터 떨어져 있다.

민주화의 상징, 국민 가슴 속으로

유족 뜻 따라 6일 국장… 서울현충원 잠들다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기나긴 정치 여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 '햇볕정책'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린 한국의 대표적 정치인, 세계의 평화인이었다.

온 국민의 애도 속에 향년 85세로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이 국회에 마련된 빈소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왼쪽). 북한조문단이 김 전 대통령 빈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이 치러진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나 국민장을 치를 수 있게 돼 있으나 이제까지 국장은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경우에만 치르는 게 관례였다. 전직 대통령으로 국장을 치르는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당초 지난 5월 7일간의 국민장을 치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민장이 고려됐으나 유족 측의 요청으로 6일간의 국장으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결식에 앞서 8월 21일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회에 도착, 조문록에 '나라사랑의 그 마음 우리 모두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이명박'이라고 적은 다음 이희호 여사를 위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 부도 직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문사절로 파견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사절단이 8월 21일 서울을 방문, 김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진 후 조전을 보내고 조문사절단 파견 의사를 전해왔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계도 일제히 애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진석 추기경 이름으로 낸 애도 메시지에서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다"고 회고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애도 메시지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 부도 직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애도문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상징적 존재였다"고 말했다.

전 세계 각계각층 인사 애도 표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각지에서 애도문이 날아들고 해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미국 백악관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애도문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용감한 투사인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슬프다"며 김 전 대통령이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弔電)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8월 18일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에서도 아소 다로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하며 애도했다. 주한 영국대사관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보낸 애도의 메시지를 공개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애도 조문을 보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CNN〉을 비롯한 미국의 대다수 언론은 김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펼쳤던 '햇볕정책'과 외환위기 극복,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을 주요 성과로 전했다. 러시아 최대 경제 일간 〈코메르상트〉 등 러시아 언론들도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1924년 1월 6일	1944년 3월	1948년	1951년	1960년	1961년 5월	1968년	1970년 9월	1971년 4월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출생	목포상업학교 졸업	목포일보 사장	흥국해운 사장, 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	민주당 대변인	5대 민의원 보궐선거 (강원 인제) 당선	신민당 정책위의장	신민당 7대 대선후보 선출	7대 대선 패배 (46% 득표)

故 김대중 前 대통령

민주화의 인동초 잠들다

1924~2009

55차례의 가택연금, 6년여의 옥고, 두 차례의 망명, 사형선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인동초(忍冬草)' 라는 그의 별명처럼 쉼 없는 고난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노벨평화상 수상,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을 화해로 이끈 남북 정상회담 등도 오랜 세월 역경을 딛고 이뤄낸 결과였다.

엄혹한 시련을 딛고 민주화를 이끌어냈고, 헌정 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우리 시대의 거목이었다.

1972년 10월	1973년 8월	1976년	1979년 12월	1980년 9월	1982년 12월	1985년 2월
망명 생활 시작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돼 동해 수장 위기 모면	3·1민주구국 선언 주도	10·26사태 후 연금 해제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	감형 후 형 집행정지, 미국 망명	2·12총선 앞두고 귀국, 총선에서 신민당 돌풍

1 1973년 8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됐다가 닷새 만에 풀려났다.
2 1971년 대통령선거 때 광주에서 유세를 하던 모습.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끈질긴 견제공작에 시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24년 1월 6일 전남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떨어진 작은 섬 하의도에서 가난한 소작농 김운식(1974년 사망)·장수금(1972년 사망) 부부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지금의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그의 어머니는 하의초등학교 4학년 때 김 전 대통령을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이후 고인은 당시로서는 전국 10대 명문 중 하나였던 목포상업학교(현 전남제일고)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일제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한 고인은 해운회사(목포상선)에 취업했다. 목포상선에 다닐 때 친구 여동생인 차용애 씨와 결혼했다.

김 전 대통령은 광복공간에서 한때 건국준비위원회(건준)에 참여했다가 좌익계열이 주도권을 잡자 탈퇴했다. 고인의 건준 경력은 오랜 세월 색깔론에 시달리는 빌미가 됐다. 6·25전쟁 때는 자본가, 반동분자로 찍혀 우익인사들과 함께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고인은 총살 직전 탈주에 성공해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다.

1954년 김 전 대통령은 금배지에 도전한다. 동기는 소박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진입은 쉽지 않았다. 1954년 전남 목포에서 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첫 고배를 마셨다. 강원 인제로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후보로 4, 5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무렵 두 아들(홍일, 홍업)을 낳은 첫 번째 부인 차 씨와 사별했다.

1961년 5대 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 사흘 만에 일어난 5·16쿠데타로 의원 등록도 못한 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정치규제에도 묶였다. 하지만 그 시절 고인은 '평생 동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났고 1962년 결혼했다.

가택연금과 사형선고… 고난의 시작

김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3년 6대 총선 때 전남 목포에서 당선되면서부터다. 1964년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 처리 때는 5시간 19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 행위)를 해 화제를 남겼다. 1970년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치른 신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고인은 평생의 경쟁자인 김영삼(YS)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후보로 선출됐다.

이듬해 7대 대선에서는 유신체제(1972년)를 구상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95만 표 차의 석패였다. 당시 고인은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대선 결과는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1987년 11월	1991년 9월	1992년 12월	1993년	1994년	1995년 7월	1995년 9월	1997년 5월	1997년 11월
평화민주당 창당, 13대 대통령 후보	통합 야당 민주당 출범	14대 대선 패배, 정계은퇴 선언	영국 케임브리지 대 수학	아태평화재단 설립	정계복귀 선언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총재 취임	15대 대통령 후보 선출	야권후보 단일화, DJP연합 합의

1

2

1971년 말 살해기도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됐다. 일본 망명 중이던 1973년 8월에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동해에 수장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후에도 민주회복국민회의 참여(1974년), 3·1민주구국선언 주도(1976년)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이후 석방과 연금이 되풀이됐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김 전 대통령은 연금 해제 및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대학가에는 민주화 열망이 넘쳤지만 '서울의 봄'은 짧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해결을 위해 진력했다. 경제위기가 가닥이 잡히자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세력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고인에게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사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정부의 압력 등으로 무기징역, 징역 20년 등으로 감형됐지만 김 전 대통령의 심경은 복잡했다.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981년 2월 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은 당시 심경을 보여준다. "나는 어느새 이불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구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1982년 12월 석방된 직후 김 전 대통령은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던 YS와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하는 등 반(反)독재투쟁을 계속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5년 2·12총선을 앞두고 귀국했다. 2·12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6·29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그는 YS와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선에 나섰다. 결국 야권의 분열로 대선은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에 대선에 도전했지만 YS에게 또다시 패배하자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옆집에 살면서 독일 통일과정 등을 연구하는 등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는 어려웠다. 1994년 귀국해 아태평화재단을 설립, 1995년 6월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참여해 조순 씨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켰고 같은 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정계에 복귀했다. 이로 인해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15대 총선 결과(79석)도 신통치 않았다.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김 전 대통령의 꿈은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1997년 12월 대선 직전 김 전 대통령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이른바 'DJP 연합'을 성사시켰고 결국 15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당선 직후부터 김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1997년 12월	1998년 2월	2000년 1월	2000년 6월	2000년 12월	2002년 5월	2003년 2월	2009년 8월 18일
15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새천년민주당 창당, 초대 총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새천년민주당 탈당	대통령 퇴임	서거

1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권 도전 네 번째였다.

2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000년 6월 13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모습.

3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00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4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고인의 측근들이 참관한 가운데 8월 20일 입관식이 거행됐다.

아래서 부도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력해야 했다. 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자민련과의 공동 정부라는 태생적 한계, 소수 정권이라는 제약에도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특유의 의지로 국면을 정면 돌파하면서 IMF 관리체제 조기 극복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로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

경제위기가 가닥이 잡히자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 간 대결에서 화해로, 상쟁(相爭)에서 상생(相生)으로 대전환을 이뤄낸 남북 정상회담 성사는 2000년 12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2003년 2월 24일 퇴임하며 고인은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함께 나라가 잘되도록 가능한 한 정성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만 활동하겠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햇볕정책이 공격당하자 고인은 강력히 반박하며 현실정치로 걸어나왔다.

고인은 대선이 치러진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진 당시 범여권의 통합을 주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전히 민주당의 최대 주주임을 보여줬다. 또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자살하자 '민주주의 퇴보'를 주장, '전직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평생을 한국 정치와 함께 해오며 '정치 9단'으로 불리우기도 한 고인의 부단한 행보는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으로 남게 됐다. G

글 · 조수진(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행동하는 양심' 고인 뜻 기려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지도자들 가운데 세계의 눈으로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능가할 사람은 아직 없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의 삶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일관된 철학과 윤리가 있었다.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동아DB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대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국 현대사에 우뚝 솟은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이 85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생전에도 고인(故人)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가 아니었지만 서거 이후 온 나라가 고인을 추모하고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해 소통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국장(國葬)을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화와 민족화해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를 기리며 애도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평생의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고인의 운명 직전 화해의 뜻을 밝혔다. 1980년 내란죄로 사형시키려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문병을 와서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편안했다"는 농담 아닌 진담을 하고 갔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물결은 세계적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 조야의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고인을 추모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고든 브라운 총리, 고인과 오랜 친구였던 폰 바이츠제커 독일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유럽 각국 정상들과 지도자들,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심심한 조의를 표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지도자들, 일본 조야의 정치인들도 한결같이 고인의 공적에 경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해외의 모든 주요 언론들이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은 것 같다.

세계적 추모 물결… 북한도 조문단 파견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북한 당국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고위급 조문단을 보내왔다. 반세기가 넘은 분단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모의 물결은 우리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일이다.

세계의 감동을 불러오는 것은 고인의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 20년에 가까운 옥고, 가택연금, 추방의 가시밭길에서도 인동초처럼 강인하게 버티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점, 집요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 되어 권위주의 체제를 일신하고 아시아의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만든 점, 이런 업적은 세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제사회에서 고인은 흔히 남아공의 만델라와 함께 비(非)서구권의 가장 위대한 민주화 지도자로 꼽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실로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는 백인 주류세력이 흑백분리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옹립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민주화는 훨씬 험난하고 가파른 과정이었다. 분단 상황과 냉전체제의 역경을 딛고 고도 산업화에 따른 방대한 기득권층의 불안감을 달래며 고인이 평화적 정권교체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공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의 스승이자 동아시아 지도자로 추앙받을 것"

세계가 경탄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고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점이다. 독일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이 그러했듯이 고인의 대북 화해 노선, 이른바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크게 고양하고 국제정치와 평화사상에서 세계의 각광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됐다. 6·25전쟁이 북측의 도발로 일어났기에 대북화해 정책을 펴는 것은 독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고인은 1960년대 말부터 민족화해와 소통의 길을 공개적으로 주창했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이 때문에 아직도 고인을 보는 까다로운 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잠시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본다면 민족화해와 통일은 필연이며 시간의 문제다. 그때가 되면 한반도를 통해 유라시아 문명으로 가자고 호소한 고인의 꿈은 새롭게 각광받을 것이며, 고인은 민족의 스승이자 세계적 안목을 가진 동아시아 지도자로 추앙받을 것이다.

세계가 경탄한 고인의 또 다른 업적은 외환위기를 미래의 성장산업, 즉 지식정보산업으로 극복하려 했고 엄청난 결실을 이룩했다는 점이다. 고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축배의 잔을 들 여유도 없이 침몰할지도 모를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위기관리 업무에 몰입했다. 각종 구조개혁을 선두에서 지휘했으며 이에 국민은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고인의 최대 경제 업적은 정보기술(IT)혁명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일류가 되자'는 국민적 각성과 자원동원이 이뤄졌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지식정보사회로 변했다. 짧은 시간 동안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이를 완성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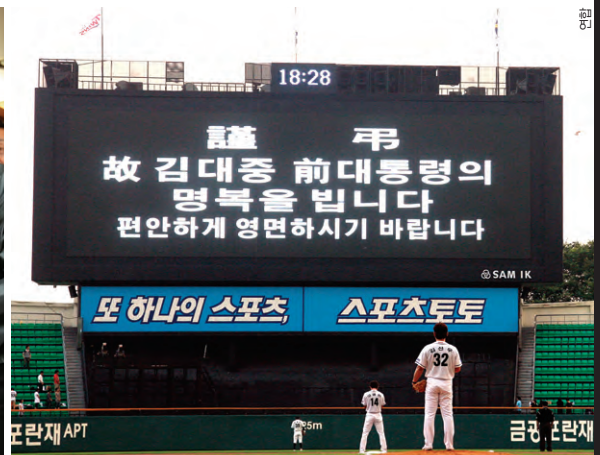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몇 분의 추앙받는 지도자가 있으나 세계의 눈으로 볼 때 김 전 대통령을 능가할 사람은 아직 없다. 단연 독보적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인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일관된 철학과 윤리가 있었다. 구약성서의 인과응보보다 절대적 용서와 화해, 사랑을 강조한 신약의 정신을 실천한 신앙인(가톨릭·본명 토마스 모어)으로서 고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가해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김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이를 완성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고인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고인은 지역갈등에 따른 동서분열,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대립, 남북 간의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온몸을 바쳤다. 고인의 뜻을 이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G

글 · 한상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동아DB

연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조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왼쪽). 야구장에서도 경건한 분위기 속에 추모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우즈를 이길 줄 알았다 그가 바로 한국인 양용은"

골프 神을 누른 무명의 110위… 아시아인 최초 메이저 우승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 19세에 골프채를 잡은 뒤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골퍼로서 외길만을 달려온 그에게 골프 인생 대역전 스토리를 들었다.

동아DB

"골프대회 사상 최대 이변이다." "역대 스포츠 사상 세 번째로 큰 이변이다." 8월 17일 양용은(37)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4)를 누르고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자 AP통신, USA투데이,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이변'이라는 말을 써가며 보도했다.

그만큼 메이저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던 타이거 우즈가 무명이나 다름없는 양용은에게 패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양용은은 '다른 선수 주변의 공기까지 빨아들인다'는 카리스마를 지닌 타이거 우즈를 상대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경기를 했다. 도대체 어떤 이력을 지닌 선수이기에 그처럼 배짱과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람의 아들, 타이거 우즈를 꺾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챔피언에 오른 뒤 양용은이 졸업한 제주농고(현 제주고) 교문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

히 하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의 모습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양용은은 19세에 처음 골프채를 잡았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두 살 때 미국의 유명 TV 쇼에 나와 '골프 신동'의 존재를 알렸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1972년 제주에서 태어난 양용은은 제주고 1학년 때 보디빌더를 꿈꿨고, 3학년 때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가난한 농가에서 3남5녀 중 넷째로 태어난 그에게 이런 꿈은 사치였다. 결국 그는 고교 졸업 후 6개월가량 아버지의 농사를 돕다가 용돈 벌이라도 하겠다며 골프연습장에서 먹고 자며 공 줍는 일을 했다. 이것이 골프와의 첫 인연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양한준(65) 씨는 "골프는 부자나 하는 운동이니 농사를 짓자"고 설득했고 그는 건설사에 들어가 굴착기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무릎을 다쳐 두 달 만에 그만두고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청춘을 보냈다. 양용은은 그 시절만 떠올리면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19세 골프 입문… "죽을 각오로 스윙에 매달렸죠"

1991년 단기사병으로 제대한 뒤 그는 제주 오라골프장 연습장에서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공을 주우며 남들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제부터 이걸로 밥벌이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조명시설이 없던 시절이라 밤에 플래시 하나에 의존해 양용은은 선배에게 얻은 중고 골프채로 스윙을 연습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남들이 공 10박스를 치면 나는 1백 박스를 칠 정도로 골프가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세계 정상에 우뚝 서기까지 양용은의 골프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끊임없는 격려와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노력한 열정은 그를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정상에까지 이끌었다.

그런 그가 스물네 살이던 1996년, 프로 테스트에 합격했지만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해 스물한 살이던 타이거 우즈는 나이키와 4천만 달러, 타이틀리스트와 2천만 달러의 후원 계약을 맺으며 PGA 투어에 정식 데뷔했다.

양용은은 1999년 상금 랭킹 9위에 올랐지만 벌어들인 돈은 1천8백만원 남짓이었다. 스스로 "구두닦이 전국 9위도 그것보다는 더 벌겠다"고 말할 정도로 적은 벌이였다. 이후 3년 뒤 국내에서 첫 승을 올린 양용은은 2004년 일본 투어에서 2승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삶의 안정을 찾았다. 양용은은 "일본 투어 시험을 보기 위해 경기 용인시의 월세 15만원짜리 단칸방에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는 가슴에서 피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동아DB

8월 17일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왼쪽)이 타이거 우즈와 악수하고 있다.

2006년 한국 오픈에서 레티프 구센 등을 제치고 우승한 자격으로 출전한 유럽 투어 HSBC 챔피언스에서 우즈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어쩌면 이때부터 우즈를 꺾고 이룬 메이저 우승이 예고됐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최경주의 길을 따라 2005년부터 PGA 투어 도전에 나섰다. 퀄리파잉 스쿨(자격시험)을 3수(修) 끝에 통과해 2008년 데뷔했지만 29개 대회에서 17차례 컷을 통과하지 못하며 상금 순위 157위로, 힘들게 딴 출전 카드를 잃고 말았다.

서른여섯 나이에 이런 역경을 만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돌아올 법하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독학으로 골프를 익힌 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골프 레슨을 받았던 것이다.

그립부터 어드레스, 백스윙 등 골프의 ABC를 다시 배웠다. 양용은은 "골프 인생을 건 마지막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을 각오로 스윙 교정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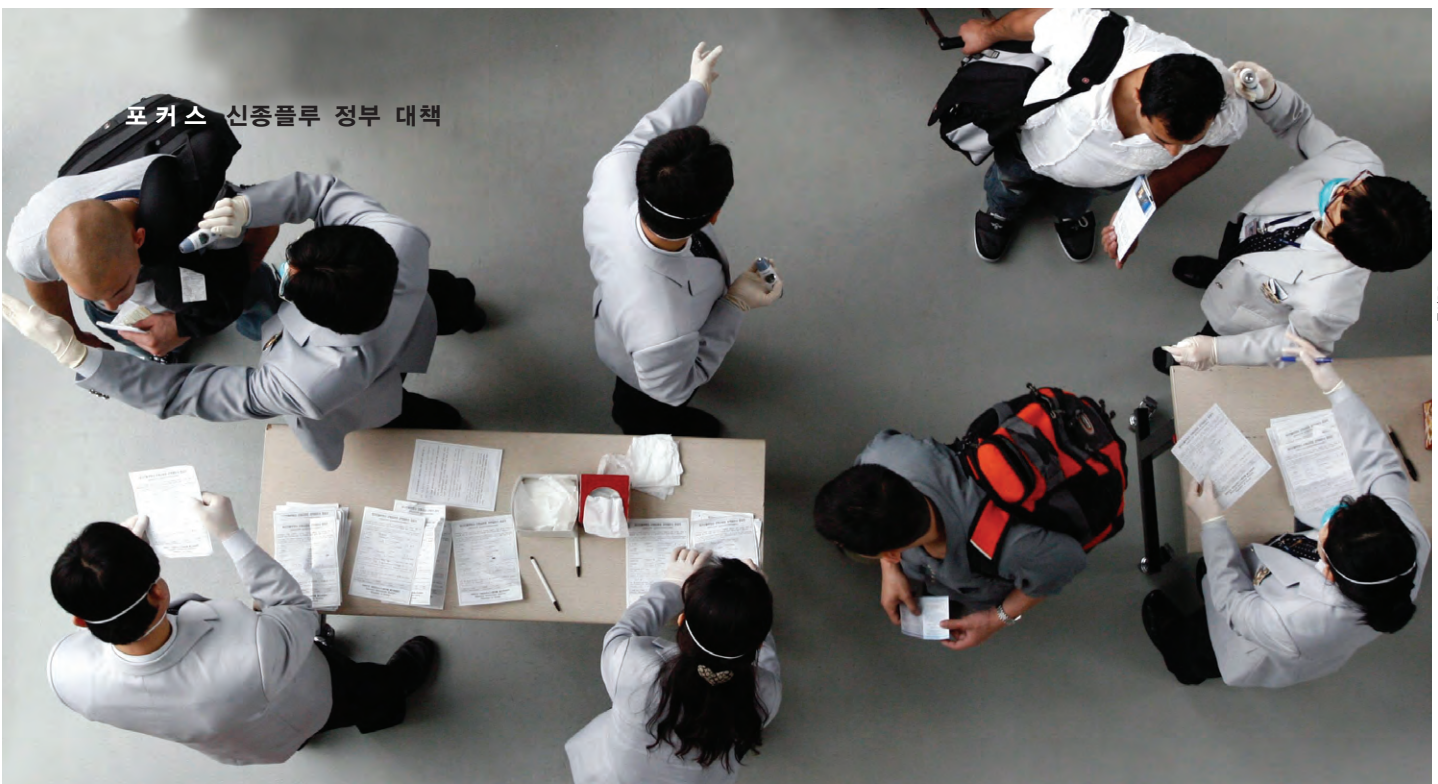
다시 퀄리파잉 스쿨에 도전해 합격했지만 출전 예정 선수들 가운데 빈자리가 나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기자 신분이었다. 지난 1월 소니 오픈 때는 하와이까지 날아가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자리가 나지 않아 허탕을 치기도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그에게 골프의 신은 미소를 지었다. 올해 3월 혼다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것. 그리고 5개월 만에 그와는 모든 게 달랐던 골프의 '슈퍼 엘리트' 타이거 우즈를 꺾고 '골프 사상 최대 이변'을 엮어냈다.

춥고 배고프고 가족까지 힘들게 했던 늦깎이 골퍼의 길,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지금도 골프장에 서 있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어린 시절 여기에 서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인들 해봤겠어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G

글 · 민학수(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동아DB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플루.
이제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신종플루 '조기치료'로 방역체계 전환

국내 사망자 첫 발생… 의심 환자 등에 의료보험 한시 적용키로

발병 3개월이 지나도록 잠잠하던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 H1N1). 하지만 국내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 11월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치사율은 0.7~1퍼센트다. 8월 20일 현재 국내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2천3백20명, 환자 수에 비하면 사망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첫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고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신종플루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신종플루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종플루는 각급 학교의 개학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10, 11월 중에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치료와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먼저 각급 학교 개학 후 발열감시 및 신고체계를 갖추고 교내 환자 발생 시 휴교나 등교 중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인, 경찰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과 각종 국내외 행사 등을 통해 신종플루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심환자가 생기면 신속히 진단하고 격리하며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발생 시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폐렴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용 치료거점병원 4백55곳(8천6백49병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폐렴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중증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5백31만명분(인구 대비 11퍼센트)을 무료로 신속 투여하기로 했다.

59개월 이하 소아 · 임산부 등에 의료보험 적용

항바이러스제는 8월 21일까지 보건소, 거점치료병원, 거점약국 등에 27만명분이 공급됐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자다.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한 다른 약제, 조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또 신종플루 백신을 조기 확보해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은 오는 11월부터 약 1천3백36만명(전 국민 대비 27퍼센트 수준)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대상은 의료인

과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1백만명), 아동·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4백20만명), 초중고 학생(7백50만명), 군인(66만명) 등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8월 16일 신종플루 의심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비용은 한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플루와 관련한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는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자 △입원 환자 △고위험군 △의심 환자, 추정 환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고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열 나고 숨차면 바로 보건소나 큰 병원으로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은 증세가 나타난 지 7일이 넘지 않은 사람 중 37.8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콧물, 인후통, 기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 발생 이후 보험 적용 확대 조치와 아울러 8월 17일 응급실을 갖춘 전국 1백26개 의료기관들에 대해 매일 신규 폐렴환자(입원 중 감염 제외) 발생 사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신종플루 감염 후 폐렴으로 이어지면 사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찾아내 타미플루를 투약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폐렴환자 전원에 대해 신종플루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타미플루 투약은 의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폐렴에 집중하는 이유는 8월 신종플루로 사망한 두 사람이 폐렴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환자들도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유사 증세를 보이면 빨리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이 환자가 7월 24일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닷새가 지난 29일 처음 의료기관을 찾았다"며 "좀 더 일찍 의료기관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G

글 · 안혜리(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문의 · 거점 치료병원과 약국 전화 129 또는 1339
보건복지가족부 mw.go.kr, 질병관리본부 cdc.go.kr
대한의사협회 kma.org, 대한병원협회 kha.or.kr

동아DB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종플루 대비 행동요령(경계단계)

일반 국민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입을 가린다.
- 외출 후 귀가 시, 다중 집합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때는 즉시 손을 씻는다.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음을 병원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 특히 만성질환, 천식, 당뇨병이 있거나 고도비만인 사람, 임산부, 59개월 이하 소아, 65세 이상인 노인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를 받는다.
- 의심환자는 자택 격리 등 보건소의 지시에 따른다.

임산부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가 지정한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기간에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 단, 아기에게 전파가 우려되면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따로 받아 다른 사람이 먹이도록 하다.

의료인
- 근무 중, 근무 전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병원 입구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마스크를 제공하며 전용대기실에 보내거나 즉시 진료를 한다.
-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 급성열성질환으로 입원하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한다.

학교 및 학원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를 받게 한다.
- 신종플루 추정 또는 확진 환자는 즉시 등교 혹은 등원을 중단시키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휴교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신종플루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교, 휴원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운다.

사회복지시설
- 시설 입소자들이 고위험군일 때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잘 보이는 곳에 신종플루 안내문을 붙이고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준비한다.
-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인력 확보 계획을 세운다.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
- 의심환자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한다.
- 향후 신종플루 유행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업무 계획을 세운다.
-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직원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은 연기한다.
- 외부 방문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미루거나 2미터 이상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친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8월 20일 열린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

유엔환경계획 '한국의 녹색성장 보고서' 발표

"4대강 살리기는 진정한 녹색투자 한국은 이미 녹색성장 선도국"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색성장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중대한 시도이며,
4대강 살리기 역시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8월 20일 발표한 32쪽 분량의 정책보고서가 화제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는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정책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한 UNEP는 지난 6월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선언을 채택한 사실을 예로 들며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 외에도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UNEP가 추구하는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tiative)의 일환이다. 녹색성장을 국가적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녹색경제 전환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UNEP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시

킨 값진 시도라고 분석했다. 노동과 자본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첨단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변모하는 장정에 올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시도는 한국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또 정부가 급박한 현실과 변화의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피해 복구비용의 절감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히 생태보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UNEP는 특히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단기적 경기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60여 년에 걸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달하는 1백7조원의 예산을 녹색성장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9일 청와대에서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이 같은 투자 규모는 UNEP가 권고한 수준의 배에 해당한다. UNEP는 지난 3월 경제위기 극복과 장기적 녹색경제 실현을 위해 향후 2년간 세계 GDP의 1퍼센트를 녹색경제 인프라에 투자토록 권유한 바 있다. GDP의 2퍼센트를 환경 분야에 투자한다는 한국의 계획은 OECD 국가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4대강 살리기는 녹색 뉴딜 핵심 사업"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녹색성장 전략과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연계해 추진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GHG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UNEP는 "녹색성장 정책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포함돼 있어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보고서의 말미에서 UNEP는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의 목표는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동력의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 복원 등으로 종합적"이라며 "녹색경제가 이 같은 목표들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고히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인류를 위한 환경 및 경제 부문 투자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UNEP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한국은 현재의 산업화 중심 황색경제에서 장기적 번영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원하고 있으며, 녹색경제를 향한 시도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행동에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UNEP는 9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유엔 산하 20여 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와 함께 이 보고서를 12월에 열릴 기후변화 코펜하겐 당사국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녹색성장 세미나 및 전시회,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8월 17일 대전에서 열린 'UNEP 툰자(TUNZA) 세계 어린이·청소년 환경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4대강 살리기는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 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은 녹색성장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모범을 보여주려 한다"면서 "이 같은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방향을 녹색성장에 맞추고 있다"고 소개하자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 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슈타이너 총장의 방한과 UNEP의 이번 중간보고서 발표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파란 불이 켜질 전망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을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국가로 인정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의 진행과 감독이 요구된다. G

글 · 정지연 기자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한국 녹색성장 가장 빠르고 체계적이다"

최근 방한한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향후 미래기술 투자 유치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8월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평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참석했고,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체계적이고 잘 기획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녹색성장 정책이 향후 미래기술 분야 투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등 한국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 최초의 '녹색 호랑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AP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녹색 호랑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8월 20일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 한국 개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회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한국의 녹색성장이 국가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하고 세계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내 언론 기자들 외에 10여 명의 외신 기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녹색성장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한국 환경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다음은 슈타이너 총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은 세계 15대 경제대국임에도 도쿄협약에서 정한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올해 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의 의무감축국 포함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1백50년간 탄소 배출량의 축적 추이로 볼 때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한국도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국이든 아니든 탄소 배출량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에 가입돼 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현재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감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엄수하도록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8월 4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큰 감축 수단을 주로 적용하는 경우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21퍼센트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의 시나리오에 온실가스 1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 수단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BAU 대비 27퍼센트를, 세 번째는 감축 비용이 높은 수단을 공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BAU 대비 30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한국에서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리뷰가 잘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종의 '경제 진흥 패키지'로서 시행되면 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다.

총장의 모국(母國)인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복지재정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자로 복지에 쓸 사회적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재정 규모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대전시장은 공공부지를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대신 중앙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전시 중앙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이 계획을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보다 나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의식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환경,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투자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총장은 한국의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은 점점 천연자원 고갈이라는 시나리오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한국이 30년 전 나무 심기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라.

당시 모든 나무를 적절한 곳에 심었는지를 따진다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함몰돼서 한국이 나무 심기에 대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산림자원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G

글 · 이원주(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 √ 마침내 언론 통폐합 29년의 낡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 √ 방송과 통신, 신문 간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 √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납니다.
- √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미디어 융합 시대,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대한민국정부

기획특집

어메이징 코리아

대한민국을 보라

조영철 기자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이 걸어온 지난 1년여는 한 편의 역전 드라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계는 금융위기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의 한파는 한국을 덮쳤다.
해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보도는 겨울 삭풍마냥 차갑고 매서웠다.
그러나 한국은 꿋꿋하게 일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 세계 9위의 수출대국 등 낭보가 이어졌다.
해외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한 정책은 신뢰를 얻었고 국제적 역할 확대는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을 그려 보이고 있다.

"한국, 2050년 5대 강국 진입할 것"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쓴 2009년, 불황의 공포 속에 극적인 반전(反轉)의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외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들자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위기를 모면했던 한국은 올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며 해외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놀라운 경기회복은 해외 언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가을 한때 외채상환이 우려됐던 한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 최근 보고서에서 올 2분기 OECD 30개 회원국이 평균 0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2.3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2.3퍼센트 올라 2.6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한 2003년 4분기 이후 최고 실적이었다. 한국의 이러한 GDP 성장률은 유럽연합(EU)의 −0.3퍼센트, 주요 7개국(G7)의 −0.1퍼센트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회복세다.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24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경제가 혼수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건스탠리의 샤론 램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2대 수입원'인 한국은 중국의 강한 반등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8월 9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퍼센트로 전망해 한 달 만에 다시 1.2퍼센트 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퍼센트와 1.5퍼센트로 전망한 데 이어 지난 7월 7일 한국에서 가진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는 각각 −3.0퍼센트와 2.5퍼센트로 수정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IMF는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단행했다"고 평가해왔다.

한때 '한국 흔들기'에 앞장섰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한국 GDP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4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을 −4.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끌어올렸다. 앞서 4월 24일에는 씨티은행이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을 −4.8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는 −5.0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일본 노무라증권은 −6.0퍼센트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언론은 한국의 급격한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7월 23일 '한국 경제 성장률 6년 만에 최고일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러한 반등은 한국이 아시아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지난해 외채상환 불능 우려로 통화가 26퍼센트나 급락했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6월 24일 영국 〈로이터〉는 "한국 경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2010년 경제성장 전망(3.5퍼센트)은 OECD 30개 회원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 0.7퍼센트보다 훨씬 높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전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일간 〈르 피가로〉는 6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인터뷰 기사를 통해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빠르게 위기 극복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올해 수출액 세계 9위가 될 것이라는 뉴스도 해외 언론의 관심거리였다.

중국 〈신화망〉은 7월 12일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올해 수출액이 3천5백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인 세계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3천5백60억 달러, 수입은 3천2백7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가 2백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규모로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1985년 기록한 10위였다.

'녹색성장'이 한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수출 호조로 한국의 4월 외환보유고는 3년 이래 최고치로 증가했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4월 말 기준 61억4천만 달러가 증가한 2천1백24억8천만 달러. 이는 3월 말의 2천63억4천만 달러에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3월 말 현재 세계 6위 수준이다.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8월 20일 발표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진단했다.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7월 8일 '한국,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50년 5대 강국 진입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한국의 녹색전략을 소개했다. 프랑스의 〈라 트리뷘〉도 6월 29일자에서 '한국 녹색성장의 3가지 효과'를 설명했다.

한국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 회사인 다우존스지수의 존 프레스보 대표 겸 편집장은 올해 4월 29일자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한국의 '잡셰어링(일자리 나눔)'에 대해 "현명한 정책(Wise Policy)"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회복이 시작되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올해 6월 10일자에 보도한 팀 콘든 ING그룹 아시아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를 낙관하며 한국 경기가 '급속한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V'자형 회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한국,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50년 5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한국의 녹색전략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월 17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겪을 시련은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반등이 더 빨리 올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도전의 맥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와 청계재단 설립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 소개되는 등 해외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처럼 지금 세계의 눈과 귀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쏠려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OECD 한국 경제 전망

	2008년	2009년	2010년
GDP	2.2%	-2.2%	3.5%
OECD 회원국 GDP 평균	0.8%	-4.1%	0.7%
소비자물가지수	4.7%	2.5%	2.0%
실업률	3.2%	3.9%	3.9%
경상수지(단위:10억 달러)	-6.4	26.2	15.0

※ 전년 대비 변화

Again "BUY KOREA" 살아나는 한국 경제

몇 달째 증시에서 '바이 코리아(Buy Korea)'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회복되고 외국자본이 문을 두드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 불황의 바닥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한국.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모건스탠리 코스피 목표수치 23퍼센트 상향(Korea's Kospi Target Raised 23% at Morgan Stanley).'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 7월 20일자 이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모건스탠리가 향후 12개월 간 코스피가 1천6백50포인트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의 큰 흐름이 안정되면서 한국의 실물경제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 해외의 '눈'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종전 코스피 추정치는 1천3백40포인트였다.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은 증시와 통화를 상승시켰다. 8월 20일 1천5백76.39포인트를 기록한 코스피는 정부의 재정부양책과 역대 최저금리에 힘입어 연초 대비 약 34퍼센트 상승했다. 코스피는 2008년 41퍼센트 하락했다.

원화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화는 지난 12개월 동안 달러 대비 19퍼센트 하락해 엔화를 제외한 아시아 10대 통화 중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그런데 원화는 지난 석달간 6.7퍼센트 상승해 가장 나은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원화 가치가 상향 조정돼도 여전히 경쟁 통화보다 유리한 수준이어서 한국 수출업계는 탄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제이 카푸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리서치센터 수석전략가는 〈매일경제〉 7월 24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 증시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강한 편이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2분기를 보면 향후 새로운 영역(Next Frontier)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대만에 이어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증가율이 아시아 2위다.

"한국은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 경제와 결합시켰다. 한국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는 거의 없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증시 낙관론의 선봉에 섰던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또다시 코스피 목표가격대를 대폭 올렸다. 8월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UBS는 2010년 말까지 코스피가 1천9백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증권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목표지수대다.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정부가 67조원 이상

동아DB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한국의 금융가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 코리아' 붐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3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동아DB

의 추가경정예산을 약속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린 덕분에 한국은행이 7월 27일 발표한 7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9로 6월과 비교해 3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 7월 28일자는 한국의 7월 소비심리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플러스가 된 것 외에도 주가 상승이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소비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백화점 매출이 늘었다. 공장 생산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월 중 부도업체 수가 1백25개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부도업체 수에 대한 통계편제를 시작한 199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 6월 신설법인 수는 5천3백92개로 전월에 비해 1천3백63개 늘어나면서 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국 <신화망>은 7월 19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부도업체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2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7월 24일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은 2조5천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4배나 상승했다. 세계 2대 LCD 제조업체인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순익 역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순익은 3천20억원으로 <블룸버그>가 설문조사한 애널리스트 22명의 전망 중간치인 1천6백10억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수출·재정지출 확대와 맞물린 내수시장 회복

중단됐던 인수합병(M&A)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해외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21일자에서 "몇 개월간 움직임이 없던 한국의 기업 M&A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경기회복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재개와 함께 M&A가 다시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채권자들이 과거 외환위기 시절 인수한 기업을 되팔고 기업들은 M&A를 통한 성장을 강구하면서 지난 3년간 M&A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뒤 M&A시장이 얼어붙었다.

동아DB

첨단 기술을 앞세운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21일자에서 "한국의 경기 둔화가 서울 번화가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연기금과 사모펀드 업체들은 서울 도심의 최고급 건물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에 비해 약 30퍼센트나 하락한 다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주시하고 있고, 원화 약세로 이 같은 관심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소개된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인 세빌스코리아(Savills Korea)의 안계환 부사장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그들은 주로 서울의 엄청난 잠재력에 이끌린 부동산이나 국채 자산 펀드, 연기금 전문 장기투자자들"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위대한 국가… 경제위기에서도 효율적"

일본계 사모펀드 바나월드는 지난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송도국제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향서(LOI)를 맺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한국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격찬도 쏟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AXA의 앙리 드 카스트르 회장은 〈조선일보〉 올해 4월 11일자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한국은 위대한 국가"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은 긴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것을 현대적 경제와 결합시켰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는 거의 없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최고의 경영 석학으로 꼽히는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의 이브 도즈 교수는 5월 16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삼성이나 LG는 한국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품질도 뛰어나다"고 격찬하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좀 더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독창적인 경영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신호를 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8월 11일 〈매일경제〉에 실린 인터뷰에서 세계적 계량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 때의 미국을 예로 들며 "섣부른 기조긴축 전환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긴축정책이 2차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8월 4일자 〈한국경제〉 기사에서 한국의 경기부양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2010년까지 이를 계속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은 섣불리 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출구전략을 생각은 해놓되 지금 이행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아시아통화기금·아시아공동시장 창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선전하면서 세계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인 시스코의 윔 엘프링크 부회장은 지난 2월 13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아시아가 세계의 혁신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혁신은 모두 서쪽(유럽, 북미)에서 일어나 동쪽(아시아, 중동)으로 전파됐지만 앞으로는 동쪽에서 혁신이 일어나 서쪽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동에는 '혁신'에 필요한 젊은 인재와 자본이 있는 데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올해 3월 19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인터뷰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호주의를 택하지 않은 한국,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공동통화 창설을 제안했다.

서울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포럼 참석차 방한한 라자트 나그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도 6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아시아통화기금(AMF)과 아시아공동시장 창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재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클린 앨런 교수는 7월 7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말했다. 거시경제와 재무관리 분야의 대가인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가장 큰 과제로 'IMF 개혁'을 꼽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제는 위기를 겪으며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물부족·물오염·물난리 없는 4대강 살리기로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앞당기겠습니다

물 맑은 대한민국! 문화의 큰 줄기가 흐르는 옛 강의 모습 그대로
4대강이 국민 곁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사회도 극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해법"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號)가 잡아 올린 대어(大魚) 중 하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 외신들은 이에 대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든 새로운 성장동력" "그린뉴딜정책의 모범 사례" 등의 호평을 쏟아내며 한국의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 전략을 내세웠으며 이는 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일본 정부도 일본판 뉴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올해 1월 1일 '일본판 녹색뉴딜'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2 '한국이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고 1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녹색뉴딜이라는 환경프로젝트에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AP통신, 올해 1월 23일 '유엔, 경기부양책에 그린 이니셔티브 접목 환영'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3 '한국은 2백30만 파운드 규모의 녹색뉴딜을 통해 탄소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국인들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무섭게 해내므로 기대가 크다.' (영국 가디언, 올해 4월 21일 '미래비전 비서관 인터뷰' 에서)

#4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녹색성장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이 야심찬 계획을 통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프랑스 르 피가로, 올해 7월 8일 '녹색성장 특집' 기사에서)

녹색성장

환경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으며,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조직, 법,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힘썼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이 설립됐다. 이어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녹색성장책임관이 지정됐으며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산업·과학기술 협의체와 금융 협의체도 생겨났다.

동아DB

정부는 탄소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풍력 등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강원 대관령에 자리한 풍력발전단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산업, 국토, 환경, 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기후변화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부문별 단기계획 수립도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녹색산업발전전략을 세운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 정책과 신성장동력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녹색 연구개발 계획과 그린 정보통신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7월엔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처음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2퍼센트 수준인 총 1백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유엔 권고치인 GDP 1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 협력 펀드, 녹색창업기업 펀드 등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400대 기업 2012년까지 31조2천억원 투자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백대 기업의 녹색산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조2천억원으로 매년 평균 14.7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천억원을,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LG, SK 등 30대 그룹도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LG화학, 삼성SDI 등은 세계적 자동차업체인 GM, BMW 등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현대·기아차는 세계

동아DB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전환기술 개발 선도국가로 선정됐다.

자동차시장이 유례없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 대수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2조2천억원을 투입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그린카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태양전지·발광다이오드(LED) 부문의 유망 중소기업인 태웅, 유니슨,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등도 매출액이 급증했다. 태웅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36.5퍼센트 늘었고, 주성엔지니어링은 25.4퍼센트, 서울반도체는 70.6퍼센트 증가했다. 유니슨의 매출액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배 이상 뛰었다.

시류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이러한 호재를 놓칠 리 없다.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풍력발전 설비업체 평산에 6백24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풍력발전용 윈드타워 생산업체 씨에스윈드에 4백72억원, 매립가스 자원화 전문 업체 에코에너지홀딩스에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JP모건도 국내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한국녹색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발표했다.

녹색성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구심점인 국민의식과 생활태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국민이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한몫했다. 한국언론재단이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 건수는 2만2천9백66건으로 하루 평균 약 64건의 관련 기사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81.9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동아DB

동아DB

동아DB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와 액세서리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위).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 · 기아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

으로 조사됐다. LG화학, SK에너지 등에서는 사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 기록 · 산정 · 보고하는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과 이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도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태양광, 풍력, LED 조명, 고효율 모터 등 69개의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린 스토어'를 개설했다.

또한 전국 1백44개 지자체는 가정 · 상업 부문에서 절감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분에 대해 탄소 포인트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중 5백83.86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새로 구축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온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우뚝 세웠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뉴딜 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같은 달 열린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는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으로서 주재한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각료성명서와 녹색성장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래전환기술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채택되고 개발 선도국가로 한국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미국 〈AP통신〉, 영국 〈가디언〉, 일본 〈니혼게이자이〉, 프랑스 〈르 피가로〉 외에도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도를 앞다퉈 내보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5일 '한일, 그린도 위기극복도 경쟁하는 좋은 라이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녹색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다음 '그린의 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과 서로 좋은 라이벌로서 경쟁해 나가고 싶다"고 보도했다.

독일 〈타게스 자이퉁〉은 '서울의 녹색심장'이라는 제목의 지난 4월 1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일궈낸 청계천 복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했다.

녹색성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 실현

또 중국의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랴오왕〉은 5월 4일 '녹색성장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신형 경제발전의 패턴이다. 금융위기로 우리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을 때 이웃 국가에서 왕성하게 진행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스페인 〈엘 문도〉는 7월 5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각종 산림정책을 통해 녹색 도전의 능력과 신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인도의 〈더 스테이츠맨〉은 7월 14일자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경기침체 타개와 고용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목표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로 정비,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6월 24일 "아시아의

3대 경제국인 한국은 GDP의 5퍼센트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국내 언론에 실린,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외국인의 칼럼이나 기고 내용도 호평이 주를 이룬다.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는 "한국은 이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므로 환경상품 분야에서도 신속히 세계 선두 대열로 부상하리라 확신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상은 발전을 위한 중요하고 용기 있는 수순이었다"(매일경제 6월 27일자 칼럼)고 평가했고,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장관은 "한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중앙일보 8월 1일자 칼럼)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임기 4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필리프 티에보 전 프랑스 대사는 7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천연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 한국과 프랑스 모두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만큼 도시 에너지 정책,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기고문도 인상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EU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구축된다면 기타 국제협력국가 및 신흥경제국가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녹색성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대체로 따뜻하고 긍정적이다. 그들은 지금 녹색성장 정책을 선봉에 세워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물들이는 한국 정부의 거침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방침이다. 연내 처리해야 할 중요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조기 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EU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구축된다면 기타 국제협력국가 및 신흥경제국가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다. 내년부터는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녹색산업과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기구를 유치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퍼센트,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퍼센트, 자전거 교통분담율 5퍼센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퍼센트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엔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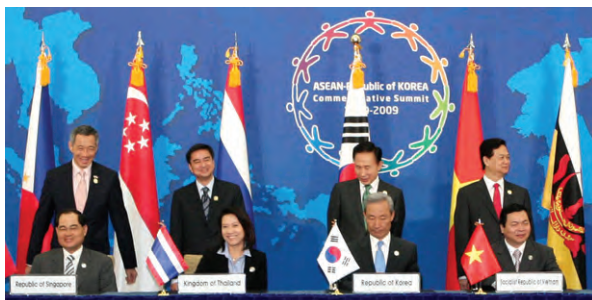
동아DB

정부의 친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라 울산 태화강 하류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칠레·미국·EU·인도와 잇따라 FTA 타결

경제잠재력 무한대로 열렸다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FTA 체결로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지는 세계시장에 자유무역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투자협정 서명식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이 서명하고 있다.

자유무역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 인구의 절반과 FTA를 맺는 세계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이라고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로서 응당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각생이었던 우리나라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FTA 체결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3월과 9월에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FTA가 발효됐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는 2007년 6월 상품협정, 올해 5월 서비스협정이 발효됐다. 또한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됐고, 올해 2월 한·아세안 투자협정에 서명했으며, 7월 13일 한·유럽연합(EU) FTA가 '실질적 타결'을 이룬 데 이어 8월 7일 인도와 내용상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각 대륙에 모두 FTA 선점기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를 타결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바야흐로 'FTA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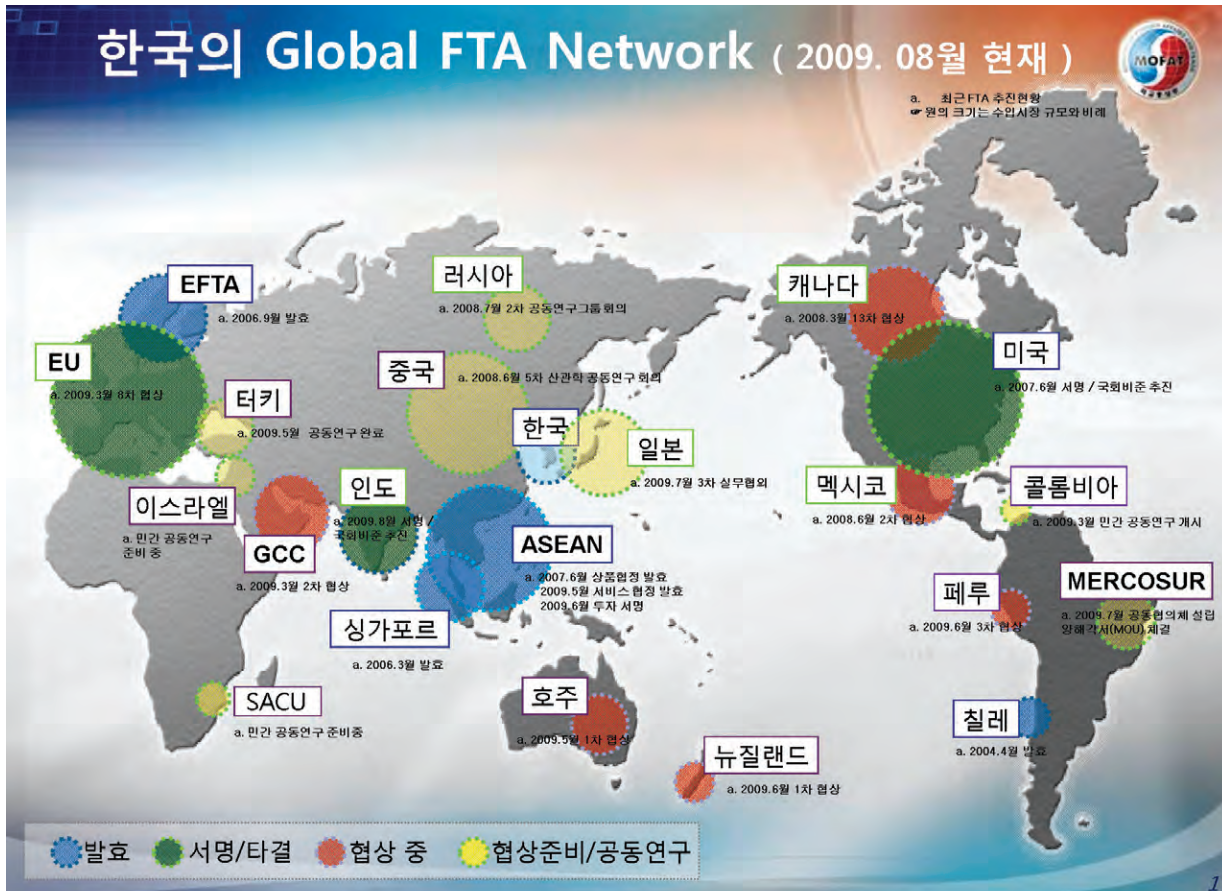
전 세계 국가들의 FTA를 통한 교역량 비중은 전체 교역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중 FTA를 체결해 비준한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아직 12퍼센트 남짓한 상태다. 남들이 서로 깎아주며 장사를 할 때 우리는 38퍼센트만큼 돈을 다 내며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EU, 인도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중 FTA 교역량이 35.3퍼센트로 올라가고,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 일본, 중국과 FTA가 타결되면 65퍼센트까지 커지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히고 있다.

FTA 효과는 FTA 발효 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와의 교역이 연평균 35.44퍼센트(수출은 42.4퍼센트) 늘었고 싱가포르와의 교역도 연평균 24.7퍼센트(수출은 30.1퍼센트) 증가했다. 또 EFTA와의 교역이 연평균 31.8퍼센트(수출은 32.2퍼센트), 아세안과의 교역은 연평균 19.5퍼센트(수출은 21.1퍼센트) 늘어나 전체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인 18.1퍼센트(수출은 16.8퍼센트)보다 높았다.

거대 경제권·자원부국 등과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

FTA의 성과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도 마찬가지다. 아돌프 카라피 주한 칠레 대사는 지난해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칠레 FTA의 성과에 대해 "칠레의 한국에 대한 수출도 FTA 체결 후 4배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FTA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카라피 대사는 또 "세계화시대에 수출주도형 경제국인 한국은 앞으로도 FTA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도 지난 6월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한국과 FTA를 체결한 후 2007년에는 교역 규모가 15퍼센트, 2008년에는 21퍼센트 증가해 4백30억 싱가포르달러(약 38조원)에 달했다"며 한·싱가포르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월 7일 한·인도 CEPA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도의 경제 모델이자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가운데 첫 번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교역이 지난 10년

간 4배 증가했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경제잠재력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된 것도 우리의 경쟁국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가진 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미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지부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현지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업계의 우려가 가장 크고, 대만 업계의 피해도 클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강력 리더십 보여"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7월 20일 발표문을 통해 "한·EU FTA 타결로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교역이 증가하고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수출대상국이며 한국은 EU의 네 번째 비유럽 교역국으로 더욱 강력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FTA는 특히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는 한·EU FTA보다 먼저 협상을 매듭짓고도 비준 절차에 들어가지 못해 한·EU FTA가 먼저 발효된다면 한국시장을 유럽에 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찰스 그래슬리(공화당·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국이 EU와 FTA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없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을 하고 있다. 또 중국, 일본,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기침체 속에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지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자유무역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4일 <중앙일보>에 실은 기고를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라는 목표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G

글·이혜련 기자

G8 정상회의 참석·G20 의장국

대한민국 대통령 마이크를 잡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의장국,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대표 신흥 경제국가로 세계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의 굳건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아시아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 교

지난 4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주최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바로 옆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G20 금융정상회의로 대표되는 주요 국가들이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세계를 이끌어왔다.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을 돌아보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G8 정상회의에 이탈리아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 사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초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들에게 신흥 경제국들의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내년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의장국 선출과 관련해 다보스 포럼(전 세계 유명 정치인과 학자들의 모임)의 슈바브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한국의 의장국 선출은 세계의 권력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논평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경제를 견인해나가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

"한국, G20 의장국 선출… 세계 권력 재편 방증"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케 한 자리였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부실 금융자산 처리 경험 등 외환위기 극복 노하우를 앞세워 선진국들과의 대화를 주도했다. 그 결과 G20 선언문에 이 대통령이 그간 국제무대에서 주장해온 금융위기 해법들이 대부분 포함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졌다.

사이먼 쿠퍼 한국 HSBC은행 대표는 "회담 안건 선정에서부

동아DB

지난 4월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담소 모습.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터 성명서 초안 작성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한국이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정상회담의 주요 화제였다. 참가국들은 한국 대표단에 자문하고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정상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도 'G20 정상 성적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을 3위로 꼽는 등 한국의 활약을 높이 샀다.

국제무대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다. G20 정상회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가장 위대한 친구 중의 하나"라고 먼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대해 양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 등 대북 공조를 결의했다. 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2000년 대북 공조에 이어 거의 10년 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부실 금융자산 처리 경험 등 외환위기 극복 노하우를 앞세워 선진국들과의 대화를 주도했다.

당초에는 이념적 성향을 들어 한미 정부가 정책 공조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양국 정부는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행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미 제네바 협상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의 지난 1월 〈동아일보〉 인터뷰는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미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지역 안보구조를 차근차근 구축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은 어떤 이슈에 접근할 때 한미동맹은 그런 개별적 이슈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우드로윌슨스스쿨 석좌교수도 올해 1월 같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가장 중요시하므로 양국이 서로 조율을 잘 해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도실용주의 입각, 한미동맹 공고히 다져

이와 관련해 지난해 9, 10월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미, 중, 일과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9개국 지도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가장 많이 기여할 국가는?"이라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94퍼센트는 미국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강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관은 이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아시아 내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라며 "양국이 함께 아시아에서 지배구조의 확산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의 관측도 이와 다르지 않다. 소르망 교수는 지난 7월 7일자 〈동아일보〉 기고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가치 방어'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두 나라에 걸린 것이 물질적, 경제적, 군사적 공동이해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아시아의 동맹을 언급하며 '서울의 포용력 있는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처럼 높다. 신흥국의 선도국가이자 '아시아 가치동맹의 축'으로서 세계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며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에 초청돼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 기부로 글로벌 리더의 모범 보인 이명박 대통령

2007년 12월 대선기간 중 재산 기부를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3백31억원의 재산 기부를 공식 발표하자 주요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큰 관심을 보였다. 〈AP〉, 〈AFP〉, 〈신화통신〉, 〈블룸버그〉 등 주요 통신들은 7월 6일자로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렸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 러시아의 국영 〈1TV〉 등도 상세하게 이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번 재산 기부는 재벌의 비리 스캔들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대통령이 한국의 일천한 기부 전통과 부자들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 속에서 모범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유한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한국 내 정서를 볼 때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 세계 언론은 이 대통령의 기부는 한국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각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언론·언론인이 본 '한국 미디어법 개정'

"글로벌 미디어 발판… 한류 확산될 것"

29년간 묶여 있던 미디어법 개정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글로벌 미디어산업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떠오르는 핵심 산업 중 하나다. 외국 언론과 유력인사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국 미디어산업에 대해 다양한 전망과 조언을 내놓고 있다.

일러스트·이우정

미디어

"미디어법은 이명박 대통령 아젠다의 핵심이다." (2009년 7월 24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한국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가 이 대통령의 개혁 아젠다 추진에 중요한 승리를 제공했다."(2009년 7월 23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신호탄"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법 통과는 1980년 신군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방송 구체제가 29년 만에 전환기를 맞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체제가 허물어지고 신문과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등 매체 간 겸영이 허용돼 21세기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킬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다. '방송 공영화'를 표방한 신군부는 언론 통폐합으로 민영방송을 없애고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했던 것이다. 1988년 언론기본법이 부분 수정됐지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신문과 방송 사이에는 엄격한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갖고 있던 '신문과 방송 겸영의 원천 금지 조항'이 폐지돼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게 됐다.

매스컴의 독립성 갖춘다면 신문·방송 겸영 문제없어

고모리 시게타카 후지필름 사장은 〈동아일보〉가 2009년 7월 31일자로 보도한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흔한 현상이다. 매스컴이 대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만 갖춘다면 한국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신문과 방송의 겸업이 허용되는 등 미디어 간 장벽이 없어진 지 오래다.

독일에는 신문, TV, 라디오 등 매체 결합에 제한이 없다. 단, 한 매체의 언론시장 점유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추가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두 차례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할 수 있다. 미국은 전국 2백10개 권역별로 동일 시장 안에서는 교차 소유를 할 수 없지만 해당 권역 밖으로 넘어가면 교차 소유가 인정된다.

미디어 매체 간,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규제완화는 미디어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의 활용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디어법 개정 이전부터 우수한 정보기술(IT)력과 한류(韓流)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런 차일즈 BBC월드와이드 부사장은 〈동아일보〉 2009년 2월 24일자 인터뷰에서 "IT 선진국으로 인터넷 기반이 잘돼 있는 한국은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미디어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 개정 이전이던 당시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가 외국 채널의 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채널 진출에 대한 법적 간섭이 심한 것이 단점"이라고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아DB

미디어법 개정(7월 22일)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과 같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류 콘텐츠는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에서조차 통하는 문화적 자산이다.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조선일보〉 2009년 6월 5일자 인터뷰에서 싱가포르의 한류 열기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한국영화, 드라마 등을 보며 즐긴다"며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문화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국 신문, 뉴미디어 진출 더불어 해외로도 진출해야"

한국 미디어산업은 향후 해외진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외국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세계적인 광고회사인 WPP의 마틴 소렐 대표는 〈조선일보〉 2008년 8월 1일자 인터뷰에서 "앞으로 뉴미디어와 전통 매체 간의 융합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신문 역시 뉴미디어 진출과 더불어 해외로도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이 융합하는 '크로스 미디어' 전략과 더불어 글로벌화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호주 출신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퍼레이션은 〈폭스TV〉, 〈월스트리트저널〉, 〈더 타임스〉 등 52개국 7백80여 개 미디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머독은 '복합 미디어 전략의 중요성'을 내세워 인터넷 쪽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는 2005년 5억8천만 달러에 '미국판 싸이월드'인 '마이스페이스닷컴'을 인수해 자사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영화사, 〈ESPN〉 채널, 〈ABC〉방송 등을 소유하고 있는 월트디즈니 역시 뉴미디어 매체 활용에 적극적이어서 자사 TV 프로그램을 애플사의 멀티미디어플레이어인 '아이튠스'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뉴스코퍼레이션, 디즈니와 함께 세계 미디어 그룹 '빅3'로 인정받고 있는 타임워너 역시 워너브러더스, 〈CNN〉, 〈타임〉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주스트'에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 인쇄매체발전대책위원회의 베르나르 슈피츠 총괄 조정관은 〈중앙일보〉 2009년 1월 16일자 인터뷰에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21세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미디어·문화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거느린 미국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준비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 유명 미디어 그룹들은 이미 각국에서 뉴미디어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 언론의 전망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글로벌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北核·폭력적 노사문화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다

북핵문제, 분단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노사분규와 정치투쟁 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것들이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한국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세계 6개 대륙 25개 주요 교역국의 외국인 4천2백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퍼센트가 기술력을 꼽았다. 한국음식이라는 답변이 10.7퍼센트로 2위, 드라마가 10.3퍼센트로 3위, 한국사람이 9.4퍼센트로 4위, 경제성장이 6.2퍼센트로 5위로 나타났다. 이어 6위는 6·25전쟁, 7위 북핵문제, 8위 영화, 9위 연예인, 10위 올림픽과 월드컵 순이었다. 한국음식, 드라마, 영화, 연예인 등 한류 관련 항목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6·25전쟁, 북핵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했다.

8월 13일 '한국 브랜드'를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분단국이나 북한 핵 등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다"면서 "한국음식, 한국의 놀이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을 해외에 적극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가 이미지 하락 이유 1위는 '북한 핵 위협'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는 8월 11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제15회 코리아 파운데이션 포럼에서 "북핵문제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외교적 과제로, 전략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동아DB

쌍용자동차 노사의 충돌 상황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경직됐던 대북관계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또 8월 17일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14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핵실험 강행 선언으로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곤란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6자회담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재도 〈중앙일보〉 8월 9일자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이 때문에 6자회담 체제가 북미 양자 간 대화보다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고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 4월 2일자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화와 토론의 창문은 계속 열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이므로 머지않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국인들은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렵더라도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3월 67개국 92개 해외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통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코리아 프리미엄 및 디스카운트 현황 파악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디스카운트 요소로 꼽은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 폭력과 과격시위 등에 따른 '폭력성'을 지적한 경우가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렵더라도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외국인들은 지적했다.

최근에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노사 충돌 상황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로이터통신〉은 "강성노조는 이미 높은 노동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등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월드마켓리서치센터(WMRC)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투적 노동조합과 각종 시위 증가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하는 중대 요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사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후진국에 속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7개 평가 국가 가운데 2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노사관계 생산성은 56위로 꼴찌나 다름없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노동 부문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 "쌍용車 사태, 노사문화 선진화 계기 삼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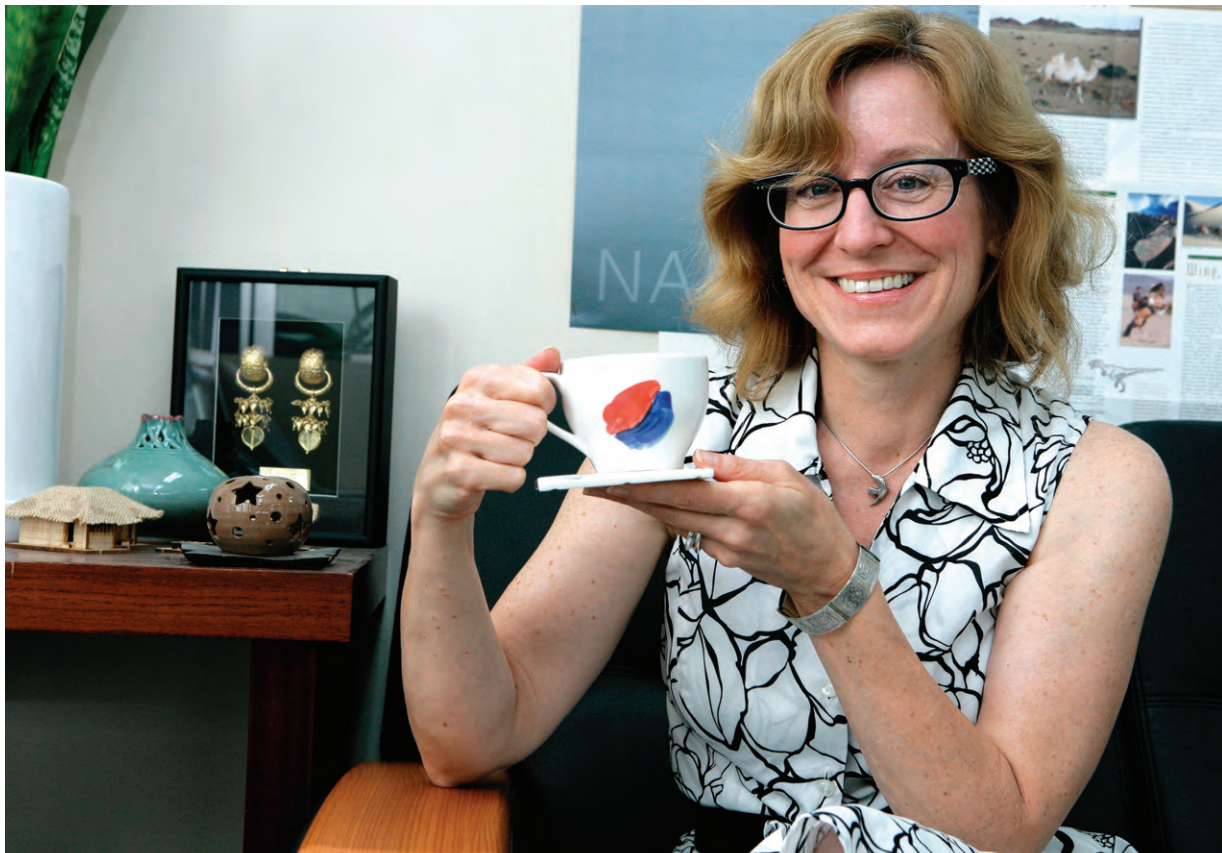
노사 충돌과 함께 국회 폭력사태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낯설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런스 버켓 씨는 〈문화일보〉 8월 6일자 인터뷰에서 "처음 한국정치를 접하고 의회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가 가능해야 하며 그것이 곧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폭력은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 성과를 내는 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아 마틴 씨도 〈한국경제〉 8월 12일자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한국의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상이 온 세계에 보도돼 놀랐다"며 "캐나다 역시 드라마틱할 정도로 토론이 격렬하게 이뤄지지만 의원들끼리 멱살을 잡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를 넘어서 의원 모두가 우정과 동료애에 바탕을 두고 대화한다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잘생기고 똑똑해도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매력적인 국가의 이미지에는 자동차나 휴대전화를 많이 수출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이미지의 시대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미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만이 아니라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로이터

외국인들은 몸싸움에 아수라장이 된 한국 국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위).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수잔나 오가 평소 아낀다는 태극 문양이 들어간 찻잔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 수잔나 오

"사물놀이에 영혼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물놀이 가락에 미쳐 꽃다운 나이를 우리나라에서 보낸 미국인이 있었다.
수잔나 샘스텍 오(Suzanna Samstag Oh)는 벌써 27년째 한국에 머물며 한국문화의 장점을
세계에 알리느라 바쁘다. 토종보다 더 토종 같은 그의 한국살이 이야기.

수잔나 샘스텍 오(51) 대성그룹 고문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통한다. 한국인 남편의 성을 따 '오 수잔나'라고 쓴 명함을 가지고 다닐 정도다. 오 고문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해외 매니저, 남이섬 문화원장을 거쳐 코리아닷컴과 대성그룹 고문으로 일하며 27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

1980년대 사물놀이 팬이었다면, 무대마다 쫓아다니며 공연자들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주던 금발머리 푸른 눈의 그를 기억하리라. 1980년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한국에 첫발을 디딘 오 고문은 사물놀이와의 첫 만남을 "영혼이 얼어붙는 체험"이라고 회상했다.

"당시 연주자들이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원년 멤버였어요. 게다가 다들 젊었죠. 무대 위에서 네 가지 타악기가 불을 뿜듯 경쟁하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떻게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하나 없이 저런 예술성을 뽑아낼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배워보고 싶어서 단원들 소맷자락을 붙들어 봤지만, 엄격한 도제 수업이 일반적이던 전통예술 전승의 영역에 젊은 미국 여성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매정하게 거절당하면서도 공연장마다 쫓아다니며 영문 편지를 번역해주고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았다. 부대낀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는 자연스레 사물놀이패의 해외공연 담당 매니저가 됐다. 1984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첫 해외공연도 그렇게 오 고문의 손을 거쳐 이뤄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니저 자리를 넘겼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애착은 그로 하여금 낯선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었다. 그 뒤로도 영어 잡지의 기자로, 남이섬 문화원장으로 일하며 한국문

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왔다. 왜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열성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문화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 것을 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제 눈에는 장점이 훨씬 많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떤 모임에 가든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던 그를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이 눈여겨봤고, 그의 제안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인터넷 포털 코리아닷컴(www.korea.com)의 운영과 기획을 맡게 됐다. 본래 2000년 두루넷이 인수했던 코리아닷컴이 2005년 9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2006년 1월 대성그룹이 인수해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코리아닷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한 외국인,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그는 슬하에 지윤, 상혁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영어 광풍'에 휘말린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너나없이 해외로 아이들을 유학 보낼 때, 그는 오히려 한국 유치원과 공립 초등학교를 고집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한국 엄마들 생각보다 한국 교육은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입사 면접에 참여해서 중학교 때부터 호주에 살다왔다는 지원자들도 만나봤지만 문법 교육 제대로 받은 토종들보다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국립극장, 국악원 등 온갖 공연장을 쏘다니며 판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라난 아이들은 영어 점수만큼 국어 점수도 1백점이다. 판소리의 풍요로운 입말로 '국어'를 배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6학년인 지윤이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진학해 판소리를 전공할 계획이고, 5학년 상혁이는 서울시 중부교육청 영재로 선발될 만큼 공부를 잘한다.

잘 자라준 아이들을 대견해하면서도 그 역시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런 저런 구상을 해보곤 한다고.

"초등학교들이 들어선 도심의 땅, 얼마나 비쌉니까? 그 땅을 놀릴 이유가 없어요. 모든 학교를 녹색빌딩으로 바꿔 1년 3백65일 24시간 문을 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애들을 봐주면 학원으로 돌릴 필요 없으니 워킹맘들 고충이 해결되지요. 밤 시간엔 평생교육센터로 바꿔 지역민들에게 재교육의 장(場)을 제공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사물놀이 때문에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됐던 그의 최근 관심사는 에너지와 환경이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대성그룹이 에너지 전문기업인 점도 한몫했다.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은 세계에너지협회 부회장으로, 오 고문은 김 회장을 도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대구에 유치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1980년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수잔나 오는 전통문화에 흠뻑 매료됐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봐요."

최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독일 출신 귀화인인 이참 씨가 임명됐다는 소식도 오 고문을 기쁘게 했다. 그는 더 많은 주한 외국인들이 자격을 갖춰 정부 정책 입안과 실행에 참여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하고 있는데, 귀화 한국인 기관장이 이제야 나오다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정책이 다 만들어진 후에야 자문을 구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 고문은 기왕이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한다. 어차피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바에야 처음부터 글로벌한 시각과 의견을 참조하며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애가 전통예술중학교에 합격하면 우리 것을 외국에 알리는 데 저보다 더 효과적인 가교가 되어주겠지요? 한국이 이방의 뿌리를 가진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수록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고 확신합니다."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존 던컨 美 UCLA 한국학연구소장

"남미·동남아 등 한국을 모델로 성장 경쟁"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40여 년간 한국에 빠져 한국학을 연구해온 존 던컨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한국학연구소장에게서 과거와 현재의 한국 모습에 대해 들었다.

중앙일보

존 던컨 소장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빨리 성공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완전히 국제 수준의 대도시가 됐지요. 많이 달라졌고 좋아졌어요."

8월 9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존 던컨(64) 미 캘리포니아대(UCLA) 한국학연구소장은 경력이 특이하다. 그는 대학 학비를 벌려고 자원입대, 1960년대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다. 군에 근무하며 한국을 사랑하게 된 던컨 소장은 제대 후 고려대 사학과로 편입해 대학 1년 선배인 부인을 만났다. 이후 미 하와이대와 워싱턴대에서 고려 말~조선 초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한국학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0년 전 한국과 지금은 차이가 많겠죠.

시골은 거의 다 초가집이었어요. 전기가 들어가는 마을도 별로 없고 대부분 고무신 신고 다녔죠. 물론 서울은 꽤 큰 도시였죠. 1970년도에 인구가 5백40여 만명이었으니까요. 택시와 버스가 다니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집들도 꽤 있었지만 하수도 시설은 별로 없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영국이 3백년, 미국이 1백년, 일본이 60년 걸린 것을 한국은 30년 사이에 이룬 거예요. 늘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잘했다고 봐야 해요. 경제성장뿐만이 아닙니다. 민주화를 쟁취해냈고, 교육 분야에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선 개헌, 군인들의 고려대 난입사건(위수령) 등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죠. 민주주의가 뿌리 박혔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같은 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발전해 있고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 역사를 자학적으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고, 조선시대 당쟁부터 시작해 한국인에겐 '분열의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제 청산도 못했고 농지개혁도 실패했고 기득권층만의 역사라는 지적들, 저는 이젠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당쟁을 분열로만 보는 것은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입니다. 조선시대 당쟁은 심했지만 전(前)근대적인 중앙집권 관료 국가들은 어디나 다 당쟁이 심했습니다.

과거 하와이에서 공부할 때 만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저렇게 잘 뭉치는데 우린 뭐냐'고 해 친한 일본계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니 '우리는 안으로 분열이 심하다. 잘 뭉치는 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인한테 물어보면 '우리끼린 만날 싸운다. 잘 뭉치는 건 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백인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동양에서 온 놈들 조심해라.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 이럽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까.

그럼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처럼 경제성장도 하고 민주화도 하느냐는 거죠.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한국을 모델로 삼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G

대담과 정리 · 김종혁(중앙일보 문화스포츠 에디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울산 시민의 강 살리기 10년 프로젝트

“연어가 돌아오는 태화강 만들었죠”

울산 태화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로 찌든 ‘죽음의 강’이었다.
하지만 시와 시민, 기업이 힘을 모아 살려내 지금은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주민들 삶의 질과 생각까지 바꿔놓은 태화강을 찾았다.

“5,6년 전만 해도 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살았어요. 지금요? 여기가 천국인가 싶네요.”

8월 13일 오전 울산시 태화강 십리대밭교 부근을 산책하던 주민 한정숙(54) 씨는 과거는 떠올리기도 싫다는 표정이었다.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걷기운동을 나온 그녀의 차림은 비에 젖어 더 선명해 보이는 태화강의 푸른 물결처럼 산뜻해 보였다.

“아침, 저녁으로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게 운동이지요. 애 아빠는 주말마다 애들하고 여기서 자전거를 탑니다. 공놀이 할 때도 있고요.”

한 씨의 집은 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로 천천히 걸어도 5분이면 태화강 둔치에 이를 수 있다. 한 씨는 “안 믿으시겠지만 태화강 정비 전에는 강변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값이 훨씬 쌌다”며 웃었다.

한국의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 시내와 외곽을 빼곡하게 둘러싼 각종 중화학공장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태화강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1970년대 이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밀려든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는 태화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공업용수로 공급되던 맑은 강물은 검붉은 물로 죽음의 긴 기름띠를 두르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인 1990년대 중반의 태화강 모습이었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백운산 계곡에서 발원해 미호천이라고도 불리는 태화강의 길이는 48.5킬로미터. 울산 시내로 흘러온 강물은 시의 남구와 중구를 가로지른다. 금모래가 아름다웠던 태화강은 울산 시민들의 젖줄이나 진배없었다.

태화강 살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정부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태화강 살리기에 하나가 됐다. 오염 원인을 12개 단위로 분류해 차단해나갔고 폐수 배출의 ‘주범’ 격인 산업체들도 적극 동참했다.

15년 동안 가정오수관 4만7천여 개를 설치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생활폐수를 원천 차단했다.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정수장을 만들고 태화강 바닥에 몇십 년 동안 쌓인 오니(汚泥·더러운 흙)를 준설사업을 통해 제거해나갔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이 태화강 살리기에 거의 미쳤어요. 길 가다가 남이 음식물 찌꺼기라도 강변에 버리는 모습을 보면 달려가 야단을 치고 그랬죠. 아까 강변 산책로 보셨죠? 쓰레기 한 점 없잖아요.”

강 바닥 준설로 수질 정화… 경제효과도 커

울산에서 3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김희창 씨는 “태화강에 대한 울산 시민의 사랑과 긍지는 남다르드다”고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대도시에서 이만큼 강과 밀접하게 사는 곳

이 우리나라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연과 같이 살 때가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김 씨의 딸은 경북 구미로 출가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말해요. 태화강만한 강이 없다고. 낙동강은 너무 오염이 심하다고 하네요."

그는 "낙동강이 태화강보다 훨씬 길지만 잘 살려놓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왜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연 그대로 두자'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전하자 김 씨의 억양이 높아졌다.

"강이 다 죽어가는데 뒷짐만 지고 있자는 말입니까? 듣자니 바닥을 준설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거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그 자신이 태화강의 준설작업을 지난 수년간 목격했다고 했다.

"그동안 오·폐수에다 마구 버린 쓰레기로 얼마나 바닥이 오염됐겠습니까? 준설해놓으니까 말끔하잖아요. 생태계 파괴? 지금 태화강엔 연어가 돌아왔어요. 낚시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별의별 물고기가 다 나와요. 생태계가 파괴됐다면 그 고기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울산시는 2003년부터 2년간 강바닥의 쓰레기 퇴적물을 50만 톤이나 긁어냈다. 시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물속 쓰레기 제거작업에는 울산환경협의회, 태화강시민환경감시대 등 15개 단체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기업체와 민간단체들도 '1사(社) 1하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둔치를 청소하고 꽃을 가꿨다. 1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둔치에는 이제 철마다 다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기업체 94곳과 민간단체 71곳 등 모두 1백65개 단체가 태화강변 곳곳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취수탑을 가동해 하루 3만 톤의 깨끗한 지하수를 강으로 흘려보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 말까지 특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공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4, 5급수였던 강물은 이제 수돗물로 사용이 가능한 1급수가 됐다. 게다가 갈수기에도 하루 4만 톤의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태화강 유지수 공급시설을 세워 강우량에 따라 태화강의 수량이며 수질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게 됐다.

2007년 열린 태화강 물축제 수영대회 모습. 태화강 수질은 수영대회를 열어도 될 정도다.

지금은 '십리대밭(왼쪽 사진 왼편)'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지만 태화강 중류의 대나무밭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소로 악용되던 곳이다. 울산시는 쓰레기 투기장인 이곳에 기발한 역발상으로 숲 공원을 만들었다.

"공원으로 만드니 쓰레기 투기가 사라졌어요. 내가 산책을 하는 공간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울산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도 그렇게 추진되겠지만, 강변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주민들 삶의 질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쓰레기 투기장 '십리대밭' 변신… 시민 휴식공간 조성

태화강 전망대의 한 직원은 "대숲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찾는 시민들이 많다"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단체체험 장소로, 또는 각종 단체의 행사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십리대숲엔 현재 대숲 체험로와 죽림욕장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진규 울산시 환경정책과장은 "되살아난 태화강은 수질보다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훨씬 컸다"고 말했다.

"태화강 살리기에는 건설만이 아니라 환경, 조경 등 경제 전반의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고용창출 역시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상당수 인원들이 태화강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강 살리기는 몇백억원을 투자하면 몇십조원의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는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자전거길 등 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강 주변지역을 정비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8월 21~22일 태화강변에서 열린 '울산 태화강 환경체험 캠프' 참관을 위해 울산을 찾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박진위 사무관은 "태화강을 보며 강이 사람의 삶의 질까지 바꿔준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단순한 치수를 떠나 강이 살아나니 시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행동방식, 정신적 사고까지 변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애향심과 긍지감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물과 친한 삶의 소중함을 절감했습니다."

태화강은 어두운 과거를 딛고 울산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이다. 이 4대강을 멋지게 살려내 21세기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G

글 · 온종림(뉴데일리 기자)

2015년엔 화장률 77%… 그러나 님비현상은 아직도…

화장, 생각도 제도도 확 바꿀 때

장례문화가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은데 다들 매장을 하면 남아나는 땅이 없겠다며 화장을 해달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죠."(경기 파주시 이태현 씨)

#2 "죽으면 매장보다 화장을 하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선산에 모셨는데 산소가 너무 멀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거든요. 그마저도 교통체증 때문에 매번 힘들게 다녀오고요."(서울 도봉구 안미영 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르면 2005년부터 화장률이 매장률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에는 화장률이 77.3퍼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2009년 6월 말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49개소 총 2백41로(爐)로, 전국적으로는 공급 초과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23로, 경인지역 39로 등 총 62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벽제 화장시설은 노당 일일 평균 적정치가 3.0회지만 이보다 많은 4.8회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이용자들은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상조회사 등의 중복 예약 및 무단 취소로 예약 취소·변경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시설 이용자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화장시설이 마련된다. 올해 중 서울 서초구에 11로를 갖춘 화장시설을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5로), 용인(10로), 춘천(6로), 천안(8로), 세종시(10로) 등 수도권과 인근지역에 39로가 내년까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전망이지만 화장 증가율을 감안하면 추가 공급이 없을 경우 2015년에는 27로, 2020년엔 51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DB

2007년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 토론 참가자들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에서 추모의 촛불을 띄우고 있다.

화장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8, 9년이 소요되므로 추가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화장시설을 묘지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해 광범위한 입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대형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화장시설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대도시 지역 화장시설 크게 늘려

시설 설치비, 주민보상금, 운영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 설치를 꺼리는 요인이다. 현행 장사법은 '1지자체 1화장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없다. 화장시설은 비선호시설이라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 소지가 상존함에도 갈등 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자체와 주민 간 협의 절차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화장시설 예약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문제다. 화장장별로 예약시스템이 있지만 신뢰도가 낮고, 타 시설과 연계 운영되지 않아 중복 예약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장사법상 '모든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 화장시설이 없는 곳의 묘지 개장 시 불법 화장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팀을 꾸려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한 데 이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장례식장 내 화장시설 설치 허용 △지자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주민 참여 및 갈등 조정 절차 도입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 △개장 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도심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1, 2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현재 해당 장례식장은 총 3백

동아DB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서울시립 승화원(화장장) 2층에 이용객을 위한 카페가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9개. 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지자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시행령에 반영된다. 만일 지자체가 화장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시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 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시도 단체장에게 시군구에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에 설치 시한을 명기하게 해 불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비선호시설인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간에 도시기반시설을 '빅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실례로 서울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시설을 가동 중이다.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지 선정 및 주민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도 마련한다.

가칭 'e-하늘'이라는 장사정보 종합시스템도 도입된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전국에 있는 장사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중복 예약, 생존자 명의 예약, 다수시설 예약을 차단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 화장시설 39로가 내년까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화장시설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사망자 정보를 전국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화장 장소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 개장 유골을 화장할 때는 이동형 화장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장사시설 수급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별로 과제 추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부처 협의가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총리실이 조정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임윤아 씨(오른쪽)는 두 번이나 개인전을 열어 화단의 호평을 받았고, 동생 승준 씨도 '영혼이 녹아 있는 목소리' 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희귀병 페닐케톤뇨증 투병 임윤아·승준 남매

예술로 장애 극복… 홀로서기가 과제

임윤아·승준 남매는 페닐케톤뇨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뇌성마비보다 훨씬 심각한 병이지만 이들 남매는 연필을 쥘 수도, 정확한 발음을 하기도 어려운 몸 상태를 극복하고 화가와 성악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동물과 꽃을 그려요. 제 꿈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임윤아)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 노래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임승준)

임윤아(25)·승준(24) 남매는 이 짧은 이야기를 하는 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남매는 5만명 중 한명 꼴로 나타나는 페닐케톤뇨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그런 몸으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윤아 씨는 삼육대 미대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두 번의 개인전을 통해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이미 여러 점의 작품도 팔린 화가다. 승준 씨 역시 삼육대 음대 김철호 교수와 가수 장사익 씨를 사사한 촉망받는 성악가다.

윤아 씨 작품의 매력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순수함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단순한 선과 색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낸다. 승준 씨는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가사전달이 힘들다는 약점이 있지만 대신 아무리 어려운 음정과 외국어 가사라도 한 번 들으면 통째로 외워버리는 비상한 능력을 지녔다. 목소리 역시 타고나서 승준 씨를 1년 간 가르친 가수 장사익 씨는 "영혼이 녹아 있는 최고의 목소리"라고 극찬했다.

누나 윤아 씨는 화가로, 동생 승준 씨는 성악가로

남매의 어머니 정선자 씨는 남매가 지금처럼 성장한 것이 그저 꿈만 같다고 한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매는 출생 후 9년 가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윤아의 상태가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래서 둘째 승준이를 갖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오랜 시간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승준이 역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승준이도 뇌성마비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뇌성마비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중증뇌성마비인 경우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오진이었습니다."

정 씨는 "당시 심정은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말했다. 숨만 붙어 있을 뿐, 누워만 있는 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한 지 9년 만에 국내 유일한 페닐케톤뇨증 전문가를 만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임승준 씨는 아무리 어려운 음정과 외국어 가사도 한 번 듣고 기억하는 비상한 능력을 지녔다(왼쪽). 임윤아 씨는 단순한 선과 색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다.

"아이들에게 치료제를 먹인 뒤 1분이 지나자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홉 살까지 꼼짝도 못하던 아이들이 약을 먹은 지 1분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후 6개월 뒤에 걸음마를 시작하고 아이들의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매와 부모의 고생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선 경제적 문제가 피부에 와닿았다. 워낙 희귀병이라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유럽에서 수입해야 했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1년치 약값만 1억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은 살인적이었다. 중산층 가정이던 이들 가족은 계속 집을 줄여나간 끝에 반지하 셋방으로 옮겼고, 무역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절망치 않고 노력하는 아이들 자랑스러워"

"하루 1백 알의 약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한 알에 2천원 정도 하니 두 아이들이 하루 먹는 약값만 40만원입니다. 청와대 등 당국에 수십 번 넘게 민원을 넣어 겨우 약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은 뒤에도 약값은 이들 부부에게 큰 부담이다. 게다가 페닐케톤뇨증과 관련해 더 나은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모든 일은 이들 부부의 몫이다. 보건복지가족부나 병원 등에서는 희귀질환자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다.

"윤아와 승준이가 페닐케톤뇨증으로 밝혀진 국내 첫 환자였어요. 치료가 진행되어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KBS의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병의 특징 등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이들과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아·승준 가족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자칫 평생 힘들게 살거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젖먹이 페닐케톤뇨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 지금은 큰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정 씨는 "우리 아이들도 일찍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오진한 의사들이 원망스럽고, 아이들이 더욱 가엾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 **제가 바라는 건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윤아 · 승준이와 같은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보험 혜택을 늘려 앞으로 혼자 살아갈 아이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이들 주위에 좋은 분이 있어 지금까지 잘 자라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아를 친자식처럼 지도해주시는 삼육대 김천정 교수님, 승준이를 지도해주시는 김철호 선생님 모두 은인이에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가 진짜 문제입니다."

정씨 부부와 윤아·승준의 소원은 부모와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생활'이다. 특히 약이 생명과 같은 이들 남매는 부모나 주변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뒤엔 말 그대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 독립은 더욱 절실하다.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윤아·승준이와 같은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보험 혜택을 늘려 앞으로 혼자 살아갈 아이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미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겐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방을, 노래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겐 합창단이나 그룹 등을 만들어 공연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서울역 3층에서 여성 노숙인에게 다가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연 철도공안관.

인권 사각지대에서 여성을 끌어안다

서울철도공안사무소 여성 노숙인 및 성폭력 전담 수사반

하루 5만~7만명의 여행객이 오가는 서울역. 국토해양부 산하 특별사법경찰인 철도공안관들은 역 구내의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난 7월 1일 출범한 '여성 노숙인 및 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우리 딸 찾아줘. 여기서 잃어버렸어. 꼭 찾아줘." 김지연(33) 철도공안관이 다가가자 여성 노숙인 이성희(가명) 씨가 하소연을 한다. 50대 중반인 이 씨는 10년째 서울역사 3층의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고 말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밤이면 역 근처 쪽방에서 자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서울역을 찾아온다. 서울역에서 근무하는 철도공안관들에게는 이 씨처럼 낯익은 노숙인이 꽤 많다. 서울역사 안팎을 터전 삼아 노숙하는 이들이 겨울에는 4백여 명, 여름에는 2백여 명이고 그중엔 여성 노숙인도 10여 명 섞여 있다.

6년차 철도공안관 김지연 씨가 이들 여성 노숙인을 유난히 눈여겨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7월 1일 국토해양부가 발족시킨 '여성 노숙인 및 성폭력 전담 수사관'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역,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 7곳에 배치된 이들 전담 수사관은 23명. 이들은 성폭력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 노숙인들을 인근 노숙인 쉼터로 안내하거나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관으로 참여해 피해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막는 데 한몫을 한다.

"20대 중반쯤 되는 여성 노숙인이 서울역사 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일이 있어요.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변기에 빠져 있고, 산모는 어쩔 줄 모르고…. 여성 철도공안관이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살핀 다음 119 구급대를 불러 후송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꼭 필요한 일이었죠."

당시 미혼인 한 여성 철도공안관이 침착하게 일을 처리했고, 산모와 아기를 노숙인 쉼터에 입소시켰다. 3년 전에 일어난 일

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서울철도공안사무소 김정민(55) 서울 분실장의 증언이다.

여성 노숙인의 임신과 출산은 철도공안관들에게는 난감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다. 2001년 서울역에서 생활하던 17세 소녀 노숙인의 경우도 그렇다. 철도공안관들이 시골에 살던 소녀의 외할머니를 수소문해 소녀를 인계했지만, 소녀는 다시 가출했고 아기를 낳은 후 노숙인 쉼터에 맡기고 사라졌다. 철도공안관들은 아기 우유값을 모아 노숙인 쉼터에 전달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 소녀가 최근 20대 중반이 되어 서울역 앞에서 장사를 거드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성 노숙인 중에는 간혹 재활에 성공해 몰라보게 말쑥한 모습으로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쌈짓돈을 털어 그들을 돕기도 하는 철도공안관들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철도공안관은 일반인에게 조금 낯선 직업이다. 신분은 행정공무원이면서 단속과 수사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철도지역 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주요 업무는 역 구내 순찰을 비롯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 내 소매치기나 절도범 감시와 성추행범 검거뿐 아니라 전동차 내 잡상인 단속까지 한다.

특별사법경찰의 효시는 옛 내무부 안에 철도경찰대를 창설한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3개 정부 부처로 확대됐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해 2008년 말 현재 8천1백99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활약하고 있다.

"역 구내 안전 지킴이… 여행객 행복까지 책임집니다"

특별사법경찰 중 철도공안관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국철도공사(KORAIL)가 운영하는 철도지역에서 근무하며, 7월 말 현재 전국에 3백88명이 있다. 대전에 있는 철도공안사무소가 본부이며 서울, 순천, 영주, 부산에 각 지역 분소가 있다. 분소는 분실을 거느리고 있는데 서울지역에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원역, 광명역, 부평역 등 7개 분실이 있으며, 각 분실에 7~16명이 24시간 상시 근무한다.

하지만 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16명이 근무하는 서울역의 경우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므로 일시 운용 인원은 6, 7명. 조를 나눠 한 시간씩 번갈아가며 관할구역을 순찰한다. 평일 5만명, 휴일 7만명의 여행객이 이용하는 서울역뿐 아니라 멀리 경의선 역까지 방범 순찰을 하는 데다 하루 8차례 노숙인 퇴거 활동까지 벌이기에는 철도공안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김정민 분실장은 말한다.

"노숙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므로 역 바깥으로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 소란이나 구걸 행위를 하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동행해서 밖에 나간 후에 도로 들어오면 별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철도공안관들이 자꾸 얘기하면 귀찮아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숙인 쪽에서 철도공안관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철도공안사무소에 와서 욕설을 하거나 하루 종일 돈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김지연 철도공안관도 입사 초기엔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역 역사 내에서 노숙인들 간에 집단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겁이 더럭 나기도 했다. 맡고 있는 업무가 경찰과 다르지 않아 폭행이나 상해사건 현장에 출동, 현행범을 체포·검거해야 할 때도 있는데 힘이 달리기도 한다. 뜬눈으로 24시간을 연속 근무해야 하는 날은 몸이 고달프다. 하지만 역 구내에서 치안 업무는 물론 길을 묻는 여행객들의 질문에도 일일이 답변해주는 밝은 표정에는 수많은 여행객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막차가 떠난 후에도 철도공안관들은 잠들 수 없습니다. 역 구내의 안전을 24시간 지켜야 하니까요." G

글 · 최은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문의 · 철도공안사무소 http://police.mltm.go.kr

철도공안관은 일반인에게 조금 낯선 직업이다. 신분은 행정공무원이면서 단속과 수사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철도지역 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서울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분소에 모인 철도공안관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조수빈

"국민 여러분, 무료 검진 받으세요"

건강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건강의 필수조건은 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4가지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홍보대사 조수빈 아나운서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9'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MBC 오상진 아나운서, SBS 정미선 아나운서와 함께 제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것 아시죠?

사실 제가 이런 일을 맡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아마도 저의 건강한 이미지 덕분에 선택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부터 밤 9시 뉴스까지 진행하면서도 끄떡없는 저의 건강에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죠. 유비무환이라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상태로 멈춰 있지 않으니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살면서 결코 아끼지 않아야 하는 지출 중 하나가 건강검진을 위한 지출이라고요. 게다가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질병이 발견된 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죠. 그래도 당장 사는 게 바빠 건강검진은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5대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4가지 건강검진을 무

료로 제공해준다는군요.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단, 자궁경부암 이외의 암 검진일 경우엔 공단이 80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수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80퍼센트씩이나 도와주는 게 어디예요. 어때요, 솔깃하시죠?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어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그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엔 2년에 1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보험료 6만원 이하 가입자 암검진 비용 전액 지원

여러분들은 무료 검진 대상자 조건이 궁금하시겠죠. 2009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주 그리고 만 40세 이상 가구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9년도 대상자,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암 검진은 발생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죠. 무료 검진 대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자,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자,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여성(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죠.

이를테면 만 40세 미만인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자로 2007~2008년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분들 또는 만 40세 이상자로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 양성자로 확인된 분들이에요.

암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8년 11월 부과보험료 기준 6만원 이하인 분,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8년 11월 부과보험료 기준 7만2천원 이하인 분들에겐 본인부담금 20퍼센트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줌으로써 전액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본 검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암 검진 등을 통한 건강위험 평가,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한 생활습관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죠.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생애전환기 무료 검진 대상자에 해당돼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하고 있죠. 무료 검진 대상자는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랍니다.

검진 대상자인 경우 공단에서 연초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 검진표를 발송해주죠. 공단으로부터 건강 검진표를 송부받은 분들은 가까운 지정 검진기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에 예약을 한 후 방문하면 돼요. 이때 건강 검진표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5대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4가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는군요.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솔깃하시죠?**

혹시 건강 검진표를 분실했더라도 걱정은 마세요. 건강 검진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검진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또는 전화(1577-1000) 문의를 통해 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검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가 통보되는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事後)관리까지 책임진다고 하네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홍보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한 가지 약속해요. 공단이 제공하는 4가지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꼭 받겠다고요. 건강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건강검진, 5대 암 검진 등 4가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세계 최초 복제 마약탐지견 6마리 인천공항서 맹활약

"명품 개코 활약 기대하세요"

복제 마약탐지견 '투피(Toppy)' 6마리가 최근 관세청 마약탐지견으로 정식 인증을 받고 마약단속 현장에 투입됐다. 탐지 능력이 뛰어난 마약견을 복제해 단속 현장에 투입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조영철 기자

마약탐지견은 마약 냄새를 맡으면 자리에 앉도록 훈련받았다.

'투피 6형제'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2007년 10월부터 관세청 최고의 탐지견으로 불리는 원본견 '체이스'를 복제해 세 번에 걸쳐 태어났다. 그동안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유견(乳犬 · 생후 3개월 미만), 자견(子犬 · 생후 1년 미만) 훈련을 거치며 대인친화 훈련과 환경적응 훈련, 지능 및 집중력 개발, 탐지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았다.

1년간 기초 훈련을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16주 집중 훈련 기간에는 대마, 헤시시,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아편, 엑스터시(MDMA) 등 7종의 마약 인지능력을 길러 완벽한 '명품 개코'로 탈바꿈했다. 기존 훈련 방식은 '쉬운 냄새(향이 많은 마약)'부터 시작해 '어려운 냄새(향이 거의 없는 마약)'를 인지하는 방식이지만 복제견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냄새'로 인지 훈련을 받는 '하드 트레이닝'을 거쳤다.

"보통 교육과정을 이수한 탐지견들은 33~38퍼센트가 테스트에 합격해 마약탐지견으로 활동하지만 복제 탐지견은 6마리 모두 합격해 혈통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종합해 8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복제견은 80~99점까지 다양한 점수를 받았죠."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정영주 과장의 설명이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서 사들여오거나 자체 번식을 통해 탐지견 2백54마리를 훈련시켰고 이 중 82마리를 실전에 배치(생산 수율 32퍼센트)했다. 하지만 복제견은 1백 퍼센트 생산 수율을 기록해 5억~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됐고, 2013년까지 모두 39마리를 양성하는 연도별 탐지견 양성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생산 수율 100%… 한국 복제견 인프라 우수성 알려

마약탐지견은 보통 두 살 때 탐지견이 돼 5, 6년간 활동하다가 8세가 되면 '은퇴'한다. 6형제도 '정년퇴직'하는 선배 탐지견 자리를 대신해 인천공항에 3마리, 인천 · 김포 · 대구세관에 각 1마리씩 배치됐다. 앞으로 5, 6년간 마약탐지요원(핸들러)과 '1인 1견' 한조가 돼 은퇴할 때까지 마약감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기간 중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탐지견은 탐지요원과 닮아간다는 것. 똑같은 사료를 먹어도 탐지요원이 과체중이면 탐지견 역시 과체중인 경우가 많고, 저체중이면 탐지견도 저체중을

동아DB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제를 통해 태어난 마약탐지견 '투피(Toppy)'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탐지요원과 수하물을 검색하고 있다.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 훈련을 마치는 생후 16개월까지 탐지견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원에 이른다니 '몸값' 만큼 대접도 융숭하리라 짐작될 듯. 하지만 실제 생활은 정반대다. 포만감이 있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 한 끼(사료)만 먹으며 '배고프게' 살아야 하고,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행평가에서 낙제하면 3주간 '보충수업'까지 받아야 한다.

'개코'의 활약은 마약단속 실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전체 마약적발 실적은 5백5건. 이 중 1백76건(35퍼센트)이 탐지견의 코에 '딱' 걸렸다. 적발된 마약 중량만 12킬로그램을 웃돈다.

지난해 5월에는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합동 단속에 나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전남 장성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가 마약 판매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세관에 탐지견 지원을 요청했고 탐지견은 정밀검색 결과 야바(YABA) 17.5정과 대마초 63.5그램을 적발했다. 야바는 환각 성분인 '야마(藥馬)'를 복용하기 쉽게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이다.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9개 공항, 항만 세관에서 활동 중인 마약탐지견은 복제견을 포함해 모두 33마리다. 다른 41마리는 현재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관리견과 자견, 훈련견으로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독립성과 활동성이 뛰어난 캐나다산(産) 래브라도 리트리버종(種)인데 복제견도 마찬가지다.

투피는 'Tomorrow Puppy'의 줄임말로 첨단 과학·훈련기술로 태어난 미래의 강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 7형제였지만 한 마리는 훈련 도중 앞발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훈련을 이수하지 못했다. 요원들은 7형제에게 '투피먼(데이)', '투피투(즈데이)' 등 각 요일별 영어 이름을 붙였다.

'개코'의 활약은 마약단속 실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전체 마약적발 실적은 5백5건. 이 중 1백76건이 탐지견의 코에 '딱' 걸렸다. 적발된 마약 중량만 12킬로그램을 웃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복제탐지견 실전 배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복제견 훈련 인프라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서울대와 공동으로 탐지견 정자은행을 설립해 필요할 때마다 인공번식을 통해 우수 탐지견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복제 마약탐지견 소식은 세계관세기구(WCO)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 사례로 알려졌고 호주, 러시아 등지에서는 세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훈련과정을 배우고 돌아갔다. 지난 3월 방한한 WCO 쿠니오 미쿠리야 사무총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극찬한 뒤 관세행정 혁신 사례로 각국에 전파한 바 있다. G

글 · 배수강(동아일보 주간동아팀 기자)

근린생활시설 '제과점→식당' 등

용도변경 신청 안해도 된다

법제처는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소규모 영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의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과 번거로움을 없앴다.

동아DB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임의화됨에 따라 서민들이 업종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 OO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제과점을 하던 박모 씨는 영업이 잘되지 않아 제과점을 정리하고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반음식점 개업 준비를 마친 박 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은 "제과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했다.

법령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다. 박 씨는 건축주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부탁했지만 "당장은 바빠서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고 미뤘다.

영업신고가 늦어져 개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 박 씨는 건축주 대신 자신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느냐고 구청에 다시 물어봤지만 '법령상 건축주가 해야 할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 씨는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모두 음식을 판매하는 유사한 영업인데도 굳이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경제상황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종은 자주 바뀌게 마련이다. 슈퍼마켓을 하던 곳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서기도 하고, 체육도장을 하던 곳에 에어로빅 교습소나 당구장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이냐 제2종이냐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제1종에서 영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을 제2종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바꾸려면 건축주가 먼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귀찮아하거나 변경신청을 늦게 할 수도 있고, 영업자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법제처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G

글 · 구자홍(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19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아! 드디어
우렁각시가!
뾰로롱~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림을 해볼까?

띠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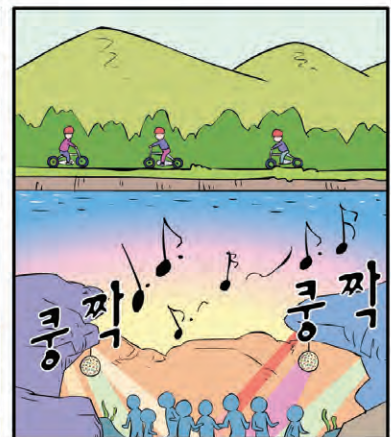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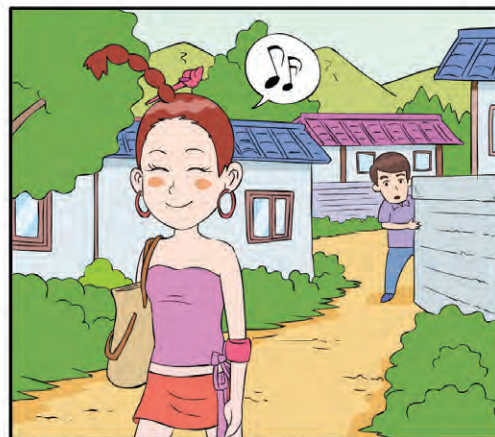
응? 은어?
웬 일이야?

정말? 거기가 그렇게 물이
좋아졌어? 아하, 4대강 살리기
덕분이라고?

쿵짝
쿵짝

You got that fire 나의 가슴을 쿵쿵쿵
You gotta drop it like its hot 지금 멈추려 하지마
감사합니다~ 오늘도 4대강에서
가장 물 좋은 우리 클럽을 찾아주신 여러분~

물이 너무
좋아져도 문제구나….
슥
슥

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들에게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년 인턴십 기업은행

3단계 프로그램으로 취업문 활짝~

1백만명을 넘어선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기업은행(IBK)의 청년 인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송진수(26) 씨는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에 매진했지만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턴은 허드렛일만 하고 경력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업은행(IBK)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른 인턴제와는 달리 직장체험을 알차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취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 3월 말 기업은행 상반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송씨는 5개월째 기업은행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일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 그는 "일을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멘터 선배가 하나하나 코칭해줘 앞으로 어떤 일에 도전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청년인턴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청년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인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직장체험 기회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동시에 실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금융실무, 자격증, 어학 등 학습콘텐츠를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6개월간 운영되는 기업은행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은행에 대한 이해와 조직 적응을 위한 '인턴 코스(3개월)', 직무 순환 및 현장체험학습 등을 하는 숙련 단계인 '레지던트 코스(3개월)', 그리고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닥터케어 코스'다.

'인턴 코스'에서는 소속 부서나 지점의 행원을 멘터로 지정해 인턴을 돕는 멘터제, 금융시장의 이해를 돕는 금융교육,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턴 생활의 능률도를 높여준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주고 이를 발표할 기회도 준다.

인턴–레지던트 거쳐 취업 지원까지 원스톱

'레지던트 코스'는 그간 배운 것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 다양한 부서와 지점에서 직무를 경험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종합평가를 통해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수료자들에게는 정규직 채용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해주고, 희망하는 모든 수료자들은 기업은행 잡월드를 통해 취업을 지원해준다.

기업은행은 11월부터 하반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한다.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정원은 2백명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버림의 미학

글과 그림 · 최영순

앞다투면 길은 좁으니 한 걸음만 물러서면 그만큼 넓어지고,
곱고 진한 맛은 짧으니 조금만 맑고 담백하게 하면 저절로 그만큼이 길어진다.
– 채근담

현명한 선택! 내 옆구리를 살살 찔러봐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지음 / **안진환** 옮김/ **리더스북** · **15,500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중앙부에 파리가 그려져 있다. 이 건물의 확장공사를 감독한 경제학자 아드 키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소변을 보면서 파리 그림을 맞혔고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은 80퍼센트나 줄었다. '깨끗이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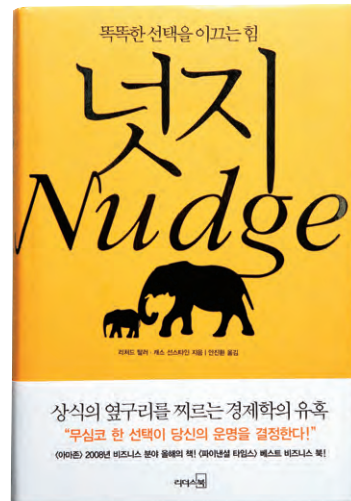
미국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심 도로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도로에는 S자 커브가 연달아 이어진 곡선 구간에서 사고가 빈발했다. 시 당국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커브에 가까이 갈수록 하얀 선을 도로에 촘촘히 그려 넣었다. 이후 사고율은 줄어들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시카고대)와 캐스 선스타인(하버드대) 교수의 공저 〈넛지〉에 소개된 '넛지(Nudge)' 효과의 사례들이다.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쿡쿡 찔러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을 지녔지만 이 책에서는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눈을 떠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좀 더 잘까' '아침 식사를 할까' 등 모든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의 기본설정처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디폴트 옵션을 따르려는 성향이나 흥행 영화에 몰리는 동조현상 등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똑똑한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휴가 때 읽어… 유연한 사고 전환 추구해야

따라서 넛지를 통해 누구나 타인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넛지는 외부에서 개입을 하되 행동하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올바른 선택을 이끄는 힘이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표방해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넛지를 유도하는 이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부른다. 환자 본인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법을 말해주는 의사에서부터 구내식당 음식을 배치하는 조리사까지 우리 현실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 설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들어준다. 〈넛지〉의 공저자들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넛지'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선택을 하지만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넛지(Nudge)'를 통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아이디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국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를 활용한 정책을 수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선스타인 교수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금융,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총괄하는 백악관 정보·규제 담당 실장을 맡고 있다.

최근 그의 제안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이 신설됐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복잡한 금융상품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의 판매를 인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다. 부드러운 개입으로 국민의 충동적인 선택을 줄여 경제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책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1천2백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휴가 때 읽을 만한 추천도서' 중 하나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8월 초 휴가지에서 읽은 책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이나 CEO들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 '변기 속 파리 그림'처럼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추구하는 넛지의 힘을 우리 모두 믿고 따라야 할 때다.

글 · 김민지 기자

7년 만에 만나는 7人7色 기악 앙상블

정명훈과 함께하는 '7인의 음악인들'

일시 8월 26일(수)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1만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B석 4만4천원
문의 02-518-7343 www.sac.or.kr

피아니스트 정명훈과 김선욱, 첼리스트 양성원과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와 김수연, 비올리스트 최은식. 국내 최정상의 클래식 스타들이 실내악 콘서트 '7인의 음악인들'을 위해 한데 뭉쳤다. 1997년 초연 당시 최고의 남성 솔리스트들을 한자리에 모아 '7인의 남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던 7인의 음악인들은 공연 때마다 좌석 매진, 최다 관객 동원 등의 진기록을 세우며 클래식계를 뜨겁게 달궜다.

2002년 이후 7년 만에 부활한 이번 공연에는 원년 멤버인 정명훈, 양성원, 최은식 외에 김선욱, 이유라, 김수연, 송영훈이 합류했다. 1974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한 명피아니스트이자 마에스트로인 정명훈이 예술감독을 맡아 콘서트를 이끌고, 첼리스트 양성원과 비올리스트 최은식은 원숙한 연주로 든든한 무게감을 실어준다.

여기에 따뜻한 감성과 완벽한 기교의 소유자인 첼리스트 송영훈과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김선욱, 신동으로 이름을 떨친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 최근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젊은 열정과 재기발랄함을 더한다.

이번 콘서트의 프로그램은 7명의 연주자들 개개인의 개성과 전체적인 앙상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슈베르트 현악 4중주 제12번 다단조는 슈베르트 특유의 서정과 감성이 잘 드러난 곡으로 평가받는 명곡이다.

2002년 콘서트에서도 연주됐던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제2번 마단조는 표현의 폭이 넓어 아티스트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곡이다. 슈만 피아노 4중주 마장조는 슈만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풍부한 악상을 가진 멋진 곡"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슈만 실내악의 대표곡으로 꼽힌다.

콘서트의 중심축인 정명훈 씨는 "7년 만에 다시 공연을 펼치게 돼 무척 기쁘고 설렌다"며 "이번 공연은 기량이 뛰어난 새로운 멤버들이 가세해 신선하면서도 환상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고구려 무덤 벽화 속의 인물

일시 9월 27일(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 고구려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465 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 무덤 벽화 모사도 1백20여 점 가운데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모사된 평안남도 용강군 감신총과 쌍영총의 인물 그림 9점이 전시 중이다. 특히 쌍영총의 '공양행렬도'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3.5미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국사책과 드라마를 통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고구려인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다.

한국미술 1960~1980

일시 8월 30일(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3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미술관 소장품 중 대표작들을 선보인다. 1960년대 초반에는 이미 경직된 국전에 반발해 추상회화가 만개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획일화된 사조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추상, 개념미술, 실험미술의 경향이 등장했다. 또한 1970년대부터는 하나의 색을 기조로 한 단색회화가 주된 경향을 이뤘다.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시대의 아픔을 겪은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고민을 엿보는 것은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매력이다.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제언

식당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자

정부가 우리 음식을 세계 5대 음식의 하나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꾸리고 국제 심포지엄을 여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까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길 만큼 추진력도 갖췄다. 거의 매일 한식 세계화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 음식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일까?

한식 세계화와 관련해 떡볶이 연구소에 1백4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잘못된 방향이다. 떡볶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떡볶이 연구에 1백4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쏟아 붓는 일이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적절한 것일까? 어떻게 떡볶이가 한식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서양 사람들은 끈적끈적한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화하려는 한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떡볶이인가, 갈비인가, 김치와 고추장인가? 사찰음식인가, 궁중 요리인가? 아니면 한국의 식사 예절인가?

이를 바탕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식을 세계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돈은 벌지 못해도 한국문화를 알리는 게 목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식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요리사가 없는 일류 음식문화는 없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전문가들은 스타 요리사를 키우는 일을 한식 세계화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쿠켄 제공

다양한 나물요리는 우리 음식의 고유한 자랑거리다. 사진은 홍시죽순채.

한식전문학교 만들고 홍보 콘텐츠 강화해야

프랑스의 코르동 블뢰(Cordon Bleu), 이탈리아의 ICIF, 일본의 츠지조 등은 자기 나라에서 요리사를 길러내는 일도 하지만 자국 음식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학교는 당연히 연구 기능을 갖게 되니, 연구소를 따로 둘 필요도 없다. 요리학교는 단순히 요리사만 키워내는 게 아니다. 코르동 블뢰와 츠지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요리책을 펴내고 있다. 이 학교 교수들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콘텐츠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

요리책은 음식문화를 퍼뜨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로 된 한식 요리책 없이 한식 세계화는 불가능하다. 해외 한국문화원에 영어판 한국 요리책이 비치돼야 한다. 출판을 포함한 미디어 전략은 해외 홍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편집자와 사진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 한식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 특급호텔이 세계화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고급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는 호텔 식당일 것이다. 한식당이 점점 사라지는 서울에서 한식당을 되살리고 지켜야 한다.

음식과 식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음식맛이 좋아도 그것을 접하게 되는 레스토랑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허술하면 일류가 될 수 없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도자기문화와 음식문화를 결합하면 좋겠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떡볶이는 절대 세계화될 수 없다.

이처럼 음식문화는 미학적, 감성적 접근이 필요한 종합예술이다. 음식문화를 세계화하는 일은 종합 엔터테인먼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한식 세계화와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면,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수준에는 한참 뒤떨어지는 듯하다. 음식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레스토랑이라는 숲을 생각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역설이지만 한식 세계화 전략은 한식 전문가들만 주도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해당 부처 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홍보와 마케팅, 미디어 전문가들의 참여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한 나라의 음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일상에 자리잡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음식의 전파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다파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과제다.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우리 정부가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삼은 한식 세계화가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G

글 · 손일영(칼럼니스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은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재산도 적고 생계비까지 막막한 우리가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큰 힘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싹이 활짝!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09년 5월 25일 ~ 12월 9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 급 대 상** :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 **담 보 재 산** :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대 출 한 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0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 **대 출 조 건** : 대출금리 7% (본인부담 3%), 2년거치 5년 상환 (중도상환 가능)
- **신 청 기 간** : 2009년 5월 25일 (월)부터 12월 9일(수)까지
- **취 급 장 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 **추 진 체 계** : 금융기관(상담 · 신청서 접수, 소득 · 조사요청) → 시군구(소득 · 재산조사 및 통보) → 금융기관(대출심사, 담보설정 및 대출금 지급)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란?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mw.go.kr) 및 취급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www.mw.go.kr

www.kfcc.co.kr ☎1599-9000

www.cu.co.kr ☎042)720-1311~2

www.fsb.or.kr ☎02)397-8600

Weekly 공감

멋지다! 양용은

제주도 출신 '바람의 아들' 양용은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무너뜨리고
아시아인 최초로 美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늦깎이 골퍼의 끊임없는 도전이 결실을 거둔 이번 승리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안겨줬다.